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Contents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09 I. 연구개요

- 10 1. 연구 목적
- 10 2. 연구 대상
- 11 3. 연구 구성
- 11 4. 연구 방법
- 12 5. 연구진 구성

13 II. 시민문화의 개념에 대한 예비적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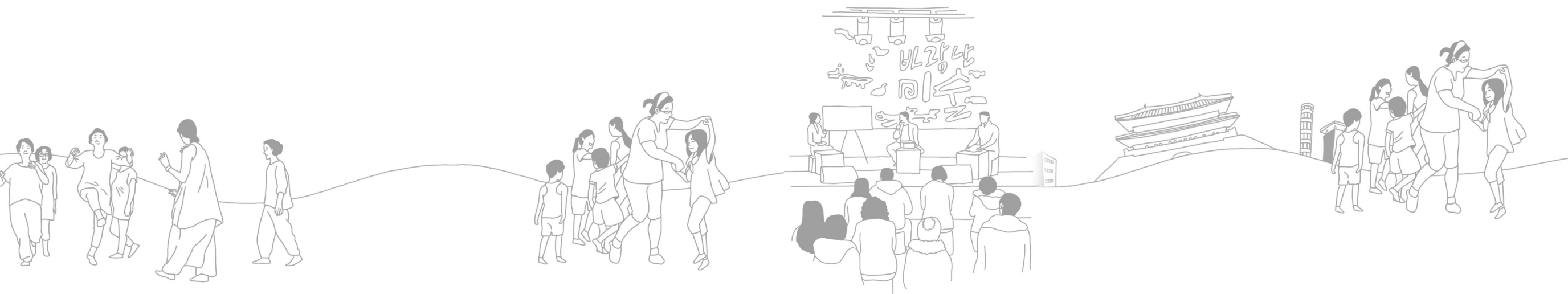
- 15 1. 시민문화의 개념 _ 법적 측면
- 21 2. 시민문화의 개념 _ 정책적 측면
- 30 3. 시민문화의 개념 _ 시민운동적 측면
- 33 4. 개념의 예비적 설정
- 37 5. 시민문화의 자리 잡기

39 III. 서울의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 40 1. 서울시의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 1.1. 민선 4기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 1.2. 민선 5기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 50 2.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 2.1. 서울문화재단 3기의 '세계 제일의 창조문화도시' 사업 비전
 - 2.2. 서울문화재단 4기의 '우수예술작품을 서울시민의 생활속으로' 사업 비전
 - 2.3.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분야 세부현황 및 한계 분석
 - 2.4. 자치구별 시민문화예술 현황
- 64 3. 서울의 기초자치단체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 3.1. 성북구 시민문화정책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3.2. 성북문화재단 주요 현황
 - 3.3. 성북구 시민문화 사업 현황 분석
 - 3.4. 성북문화재단 시민문화 활성화 전략

97 IV. 결론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98 1.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정책의 재개념화
- 106 2.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표차례

21	[표 1] 전통적인 문화정책의 영역 : 진흥과 규제
22	[표 2] 역대정부별 문화 국정지표와 문화정책의 변동
28	[표 3] 문화복지의 개념 변화
32	[표 4] 문화권의 관점에서 본 시민문화 활동
42	[표 5]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목표
43	[표 6]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10대 핵심추진과제
44	[표 7] 저소득층 문화인프라지원 사업 현황
45	[표 8]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과 디자인서울 10개년 계획
47	[표 9] 서울시 문화정책 중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문화예술로 시민만족도 제고>
48	[표 10] 서울시 2013년 사업방향 : 문화 분야
48	[표 11] 2013년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사업
52	[표 12] 서울문화재단 3기 주요사업 현황
53	[표 13] 서울문화재단 3기 사업 중 시민문화사업 현황
55	[표 14] 서울문화재단 4기 사업 현황
56	[표 15] 서울문화재단 4기 사업 중 시민문화사업 현황
57	[표 16]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현황
58	[표 17]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구성 용어 정의
66	[표 18] 성북구 지역문화 관련 SWOT 분석
73	[표 19] 성북구 문화정책 과제(종합)
76	[표 20] 성북문화재단 인력 개요
77	[표 21] 성북문화재단 주요 시설 개요
78	[표 22] 성북문화재단 2013년 주요 추진사업 현황
79	[표 23] 성북문화재단 국시비 공모사업 현황
80	[표 24] 성북문화재단 구비 사업 현황
82	[표 25] 성북구 문화예술과 단위 사업 현황
83	[표 26]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86	[표 27] 성북문화재단 국시비 공모사업 현황 주체-영역별 분류
87	[표 28] 성북문화재단 구비 사업현황 주체-영역별 분류

88	[표 29] 성북구 문화예술과 단위사업 현황 주체-영역별 분류
88	[표 30]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현황 주체-영역별 분류
89	[표 31] 성북구 시민문화 관련 전체 사업 현황 주체-영역별 분류
104	[표 32] 시민문화 지원사업의 유형화

그림 차례

10	[그림 1] 연구 대상 및 흐름
11	[그림 2] 연구 구성
11	[그림 3]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15	[그림 4] 시민문화 개념을 둘러싼 화두들
27	[그림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20>
28	[그림 6] 시민문화 활동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33	[그림 7] 시민문화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흐름
36	[그림 8] 개념 분할을 통한 시민문화의 재개념화
38	[그림 9] 주체-영역 구분을 통해서 본 시민문화의 자리
46	[그림 10] 서울시 민선 5기 문화정책 비전
51	[그림 11] 서울문화재단 3기 사업 비전
54	[그림 12] 서울문화재단 4기 사업 비전
59	[그림 13]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핵심 현안 및 문제점
61	[그림 14]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_ 연도별 지원대상 분석
62	[그림 15] 2012년 자치구별 시민문화예술사업 현황
63	[그림 16] 2013년 자치구별 시민문화예술사업 현황
65	[그림 17] 성북구 민선 5기 비전 및 핵심과제
67	[그림 18] 생활구정 중점추진과제 기본방향
68	[그림 19] 민선5기 생활구정 중점추진과제
70	[그림 20]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개요
71	[그림 21]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 개선방안
72	[그림 22] 성북구 문화비전과 5대 문화정책 과제
74	[그림 23] 성북구 문화비전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운영전략
75	[그림 24] 성북문화재단의 비전, 미션 그리고 사업추진 방향 현황
75	[그림 25] 성북문화재단 조직 개요
84	[그림 26] 성북문화재단 주요 협력주체 현황
85	[그림 27] 성북문화재단 주요 협력주체별 사업 현황
92	[그림 28]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성북구 시민문화정책 환경
93	[그림 29] 성북문화재단 중장기 과제 및 역할

94	[그림 30] 성북구 시민문화 구성 요소 + 중장기 문화정책
95	[그림 31] 성북구 시민문화 구성요소 + 성북문화재단 사업 현황
96	[그림 32] 성북구 시민문화 구성 요소 + 성북문화재단 사업 전략
98	[그림 33]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00	[그림 34] 사회적 층위에 따른 문화정책의 내용 및 대상
101	[그림 35] 시민생활권 개념화
102	[그림 36] 커뮤니티 관계망 중심의 시민문화활동 원리 _ 필라델피아 사례
105	[그림 37] 이웃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예술 활동의 기능
106	[그림 38]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시민문화사업의 목표 설정
107	[그림 39]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새로운 유형화 및 포지셔닝
108	[그림 40]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혁신거버넌스와 협력체계
109	[그림 41]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구성적 층위의 전략 사업 추진
110	[그림 42]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통섭적 관점의 전략 사업 추진
111	[그림 43]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의 관계 설정
112	[그림 44]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서울문화재단+중앙정부의 관계 설정(1)
113	[그림 45]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서울문화재단+중앙정부의 관계 설정(2)
114	[그림 46]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서울문화재단+중앙정부의 관계 설정(3)

I.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3. 연구 구성
4. 연구 방법
5. 연구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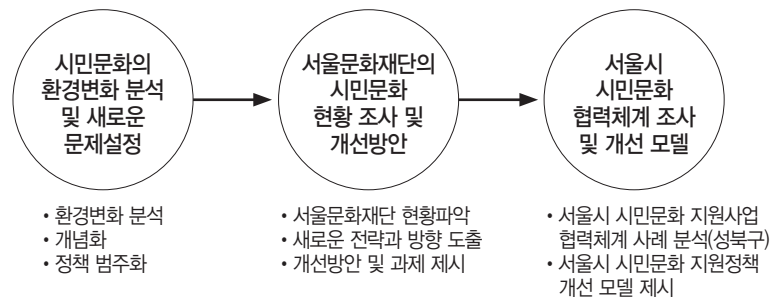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민문화의 개념 및 정책 범주화 설계
사회변동, 문화정책 환경변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민 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문제설정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지원 사업 방향 및 과제 설정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정책 흐름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민문화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시민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 및 과제 설정
- 서울시 시민문화 지원 정책의 협력체계 및 모델 발굴
기초지역의 사례를 통해 서울시(광역-기초, 서울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 정책을 둘러싼 협력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귀납법) 개선방안 및 모델 발굴

2.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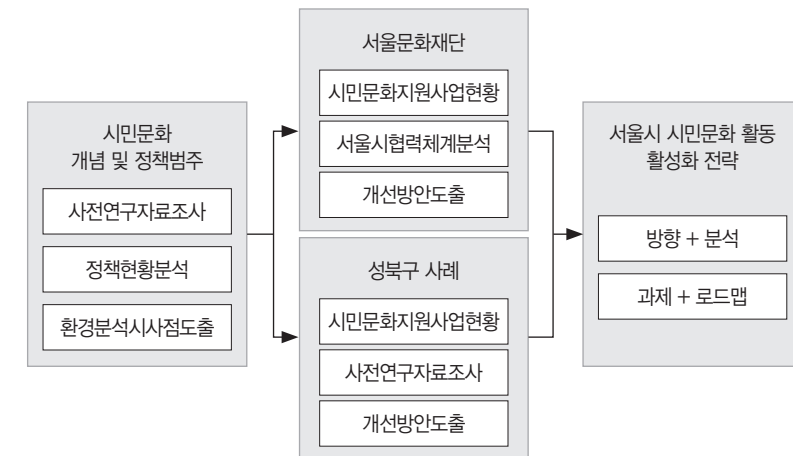
- 시민문화의 개념 및 정책 범주 설정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지원 사업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 서울시 시민문화 지원 사업의 협력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모델 제시



[그림1] 연구 대상 및 흐름

3. 연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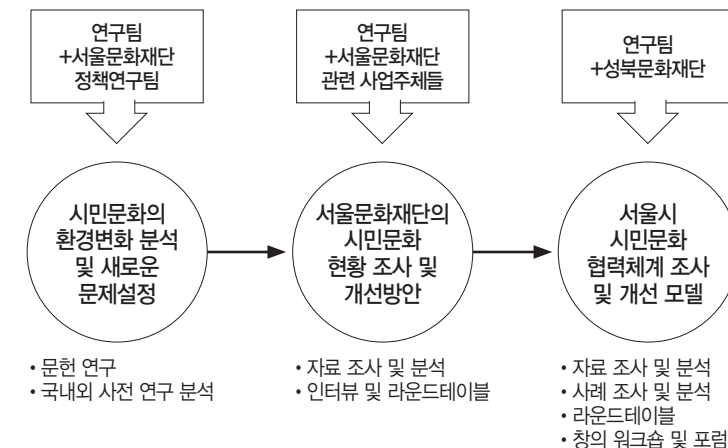
- 연구 과제를 ①시민문화 개념 및 정책범주 연구, ②서울문화재단, 성북구 시민문화 지원사업 현황 분석, ③서울시 시민문화 활성화 개선방안 제시의 3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통합



[그림2] 연구 구성

4. 연구 방법

- 연구는 단계별 특성에 따라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



[그림3]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5. 연구진 구성

외부연구진	서울문화재단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사)문화사회 연구소 상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 시당 사무처장) 박선영 ((사)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유희정 (좋은공연제작소 제작실장) ■ 연구자문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광준 ((사)시민자치문화센터 공동소장) 임정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겸임교수) 전효관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센터장) ■ 협력기관 성북문화재단 (정책협력팀 김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 김홍남 (문화사업본부장) ■ 공동연구 김보름 (시민문화팀장) 한지연 (문화제휴팀장) 김해보 (정책연구팀장) ■ 연구기획 및 진행 정책연구팀 (김해보, 김진환, 박혜원) 시민문화팀 (김보름, 황현정)

II. 시민문화의 개념에 대한 예비적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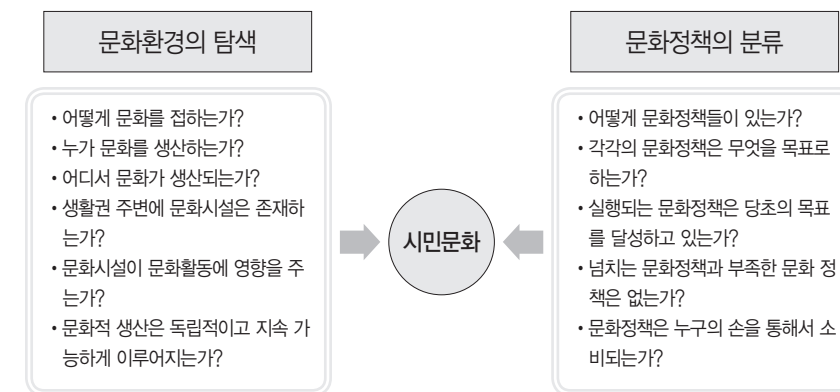
1. 시민문화의 개념 _ 법적 측면
2. 시민문화의 개념 _ 정책적 측면
3. 시민문화의 개념 _ 시민운동적 측면
4. 개념의 예비적 설정
5. 시민문화의 자리잡기

II 시민문화의 개념에 대한 예비적 탐색

- ‘시민문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 이는 기호로서 ‘시민문화’라는 말은 있지만, 그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함. 그래서 모든 시민문화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도 아니게 되어 버렸음
- 그동안 시민문화 ‘정책’이라고 불린 사업들은 예술창작 지원정책과 예술향유 지원정책의 나머지로 규정되는 ‘잔여적’인 사업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음
- 이는 시민문화가 정책의 영역으로서 고유한 범위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모호한 경계를 지니고 있었음
- 따라서 서울시의 새로운 시민문화정책을 고민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시민문화’라는 정책의 영역이 그간 정책과정에서 어떤 사업으로 나타났는지, 현행 법령 등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음
 - 이를 통해서 시민문화가 놓여야 하는 개념적 범위와 현실에서 존재했던 다양한 시민문화사업들의 공통영역을 만들고, 그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민문화정책의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정리하자면, 그간 ‘시민문화’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예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진흥과 규제라는 양자에 포괄되지 못하는 정책 영역의 잔여로 분류되어 왔음
 - 시민문화는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영역을 지니는데 한계가 있고 자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의 환류를 통한 정책발전보다는 성과목표가 모호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커짐
 - 시민문화의 명확한 개념정립과 이를 통한 시민문화정책의 독자적인 정책 목표 및 수단의 판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래서 시민문화의 탐색은 현재의 문화환경에 대한 탐색과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된 문화정책의 진단을 통해서 시작될 수밖에 없고 구성되어야 함

- 이런 조건 아래에서 시민문화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시민들의 문화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각종 문화정책들을 분류하고,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적합한 시민문화의 범위와 영역을 새롭게 판별해내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며, 성북구라는 구체적인 생활권 영역에서 문화환경 탐색과 국가-지방정부-기초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을 전제로 함



[그림4] 시민문화 개념을 둘러싼 화두들

1. 시민문화의 개념 _ 법적 측면

- 시민문화가 내용이 없는 개념으로 존재했지만, 이와 근친성을 지닌 주요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시민문화로 소비되었던 정책들이 있음. 다음에서는 이를 법적 측면, 정책적 측면, 시민운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시민문화로 정립될 수 있는 내용의 요소들을 판별해보고자 함
- 우선 법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국제법과 국내법적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통상 법체계상 국제법은 국내법의 위상을 갖는다고 설명하나, 국제법규의 특성상 내용이 포괄적이고 최근 ‘문화다양성 조약’의 부분 비준에서 보듯이 선택적 수용도 가능해서 구속력을 가진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내법에서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

제법상의 내용은 특별하게 우리 문화적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함

(1) 국내법¹⁾

- 우선 헌법에서는 전문을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즉, 문화 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은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제22조를 통해서 그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정하고 있음. 즉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기회균등이라는 권리를 가지며, 특히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목적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상이나 주체로서 국민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만을 나열하고 있음
- 제3조(시책과 권장)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법의 제3장에서는 ‘문화예술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엔 문화강좌 설치나 학교 등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포함되며 부분적으로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적 의무의 대상인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한 사항만 다루고 있음

1) 본연구 진행 시점에서 입법 예고되어 있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생활문화 및 시민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 됨. 이번 연구에서는 이 두 법령을 제외하고 2013.10월 현재 법령 체계상의 한계를 분석함

- 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전체 10개 항목 중에서 시민문화 일반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이는 제20조에 의해 설치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에도 똑같이 적용됨.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지만, 제2조(정의)에 비추어 문화예술은 각 장르별 구분에 한정됨
- 다시 말하면, 법 상 국민이나 시민들의 일반적인 문화활동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지원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전체 구문 중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37조(예술의 전당)외에 존재하지 않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 2013.7.16.〉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 2014.1.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예술의 전당)

-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 ②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 ⑤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화예술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개개 국민들의 문화창작과 예술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음
 - 제23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법령 체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환경의 조성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정부가 직접적인 행위자가 돼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를 통해서 “서울을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병렬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시되어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제2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체가 아닌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측면임
 - 이는 법령 체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문화활동을 위한 조건으로서 ‘문화환경’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문화환경의 조성에 있어 지역간 균등 발전과 일률적인 정책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데 반해, 광역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선별 정책을 통해서 차등적인 문화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정책 대상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문화환경의 조건으로 문화도시를 제안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 가.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 나.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 다.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 마.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의 정착

-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취약함. 제7조를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의 육성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을 특정하고,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작성에 ‘민간참여’의 방안을 강구할 뿐임
- 하지만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을 통해서 시민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제도 중에서 시민문화의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 중 하나임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르면 시민문화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같은 개념이 되고 그것의 목적은 ‘건강한 시민문화의 정착’에 놓임
- 이 조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문화도시를 앞의 조항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만 한정되어 이해하지 않고, 시민문화의 보편적인 육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시민문화는 ‘시민’이라는 당사자에 의한 문화활동 일반을 가리키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되고 마는 한계에 봉착함
- 이런 일반성은 사실 아무것도 규정해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기 때문에 기본조례를 보충하는 일반조례가 부재하다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의 정착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 (시민문화의 정착)

-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2. 시민문화의 개념 _ 정책적 측면

- 시민문화의 개념은 특정한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구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과 저것이 아닌 영역의 분할을 위해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문화 민주주의라는 말은 1987년 체제가 1990년 대를 거치며 성숙되어가던 정치적 민주화와 IMF체제로 대표되는 성장주의적 경제 정책의 종말로 ‘국가’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으로 시민사회의 발견과 확장 과정에서 나타났음
- 즉, 과거 국가에 의한 문화정책이 ‘진흥’과 ‘규제’로 양분되고 전자는 예술가와 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고, 후자는 표현의 한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언급됨

[표 1] 전통적인 문화정책의 영역 : 진흥과 규제

진흥으로서 문화정책	규제로서 문화정책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제도	청소년 등 대상 보호를 위한 규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풍속관리를 위한 규제

- 하지만 제3의 공간으로서 시민사회의 등장은 그간 개별 대상자에 대한 진흥과 규제로 특징지워졌던 문화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음. 작가들의 집단이라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대상을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통제하기 용이했고, 무수히 많은 문화창작물도 국가기구에 의한 사전검열이 가능할 정도로 소수였던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임
-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향유’와 ‘문화복지’라는 용어임. 기본적으로 문화향유는 세부적인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민족문화의 보존과 창달’로 이해되어 왔음. 즉, 전통문화를 지키고 오랜 기간 내면화된 우리식의 가치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음

[표 2] 역대정부별 문화 국정지표와 문화정책의 변동²⁾

시대구분	정부별 국정지표 및 외부 환경	문화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변동
1945~1960 초기의 국가 문화 기반 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정 학무국 ■ 정부 수립과 공보부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조 부재 * 최소한의 국가 문화기반 및 제도 형성 - 1945 국립도서관, 박물관 개관 - 1949 국전 창시 - 1950 국립극장, 국악원 설립 - 1952 예술원 설립 ■ 언론 영화 방송 출판 업무 중심으로 추진
1961~1979 문예진흥 입법과 민족문화 중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 ■ 국방력 강화 : 총력안보 ■ 국민총화 ■ 민족중흥 ■ 공보부(1961-) ■ 문화공보부(1968-) ■ 4 · 19(1960), 5 · 16(1961) ■ 유신체제(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문화 입법: 공연 · 문화재보호, 불교재산 관리법 등(1961~62), 영 화 · 음반법(1956~67) ■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1964) ■ 출판금고 설치(1969)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 ■ 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78)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1980~1987 문화기반시설 확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국정지표 - 민주주의 토착화 건설 - 진정한 복지사회 건설 - 정의로운 사회 구현 - 교육혁신과 문화창달 ■ 518 광주민중항쟁(1980) ■ 629 선언(1987) ■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 상식의 시대 - 자유, 풍요, 행복의 복지 시대 ■ 화합, 통합, 협화, 협력 의 시대 (13대 대통령 취임사) ■ 서울올림픽 ■ 문화부 설립(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경제사회발전 '문화부문계획' 수립(1983) ■ 문화시설 확충과 지방문화 육성 - 전통문화유산 개발과 창작여건 개선 ■ 민족문화의 국제적 선양(1986, 1988 계기) ■ 문화발전 장기정책 구상 (1986~2000)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_ 복지, 조화, 민족, 개발, 통일 문화 틀 1. 문화창조력 제고 2. 문화 매개기능 확충 3. 국민 문화 향수 확대 4. 국제 문화교류의 증진
1988~1992 문화부 발족과 문화발전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 ■ 문화부 설립(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 (1991) ■ 7차 5개년 문화부문 계획(1992~96) ■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

2) 박광무, 『한국문화정책론』, 김영사, 2010. [표1-4]를 재수정.

1993~1997 문화산업 태동과 문화복지 증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국창조의 꿈 실현 -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 사회 - 정의로운 사회 - 문화적 삶과 인간의 품위 - 평화통일조국의 기대 ■ 세계화 원년 선언(1995) ■ 제2의 건국역사바로세우기 ■ 세계일류국가구현(1996) ■ 1997년말 IMF 체제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정책기조: ①규제-자유, ②중앙-지역, ③창조계층-향수계층, ④분단-통일, ⑤세계로 1. 민족정기 확립 2. 지역문화 및 문화복지 3. 문화창조력과 문화 환경 4. 문화산업개발과 기업문화 5. 남북문화교류 및 세계화 ■ 문화산업국 창설(1994) ■ 일본 문화 개방시작 ■ 조선총독부 철거 및 경복궁 복원 ■ 국립중앙박물관 기공 ■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
1998~2002 문화산업 진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민주주의 실현 ■ 문화산업 육성 ■ 남북한 화해와 협력 ■ 615 남북정상회담(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대중문화 개방(1998) ■ 문화예산 1% 달성(2000) ■ 한국 문화이미지 홍보(10대 문화상징) ■ 검열제도 및 기구 재편 ■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 10대 과제
2003~2007 창의문화계획 수립 문화도시 조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지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 전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 이라크전 발발(2003) ■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07)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역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민주주의 실현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 디지털융합시대 도래, 주5일 근무제 시행 - 문화산업매출 54조원 (GDP 6.7%, 2005) - 문화관광 · 레저 시대 본격화 ■ 한류 등 관광콘텐츠 발굴, 외래 관광객 6백만명(2005) ■ 문화도시 조성 : 광주, 경주, 전주, 부여-공주

<p>2008~2012 선진문화국가 구현기</p> <p>이명박정부</p>	<p>■ 국정지표 : 선진일류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기는 정부 - 활기찬 시장경제 - 능동적 복지 - 인재대국 - 성숙한 세계국가 <p>■ 비전 :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p> <p>■ 추진 방향 : 1.수요자 중심, 2.선택과 집중, 3.실용과 효율, 4.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5.문화를 통한 소통 및 녹색성장</p> <p>■ 4대 목표, 32대 핵심 정책과제</p> <p>■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p> <p>■ 문화 바우처, 예술지원제도 개혁</p> <p>■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p>
<p>2012~ 문화융성</p> <p>박근혜정부</p>	<p>■ 국정지표 : 희망의 새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p>■ 정부 추진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2.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3. 문화국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통한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전개

○ 1980년대 개방된 대중문화의 시대에는 전통문화와는 또 다른 향유의 문제를 낳았음. 전통문화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관리가 가능했지만 대중문화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문화적 소외 현상이었음. 한편에서 대중문화의 향유가 문화생활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수록, 대중 매체들이 대중문화의 주요한 현상들을 주요한 의제로 퍼트리수록 사람들 간에 소통 불가능한 '문화 차이'가 발생함. 이런 차이는 우선 취향의 차이로 나타났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는 갈등과 종합을 반복해 왔음
- 하지만 고급/대중 문화의 차이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적인 접근성을 갖는다면, 그 차이는 격차로 나타나게 됨. 격차로 나타나는 순간 사회적 문제가 되고, 문화격차는 곧 사람들 간의 문화 소외를 낳게 되었음. 따라서 대중문화가 확대 될수록 문화 소

외는 더욱 큰 차별의 외양을 띠게 됨

○ 이런 문화소외의 극복을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선택했던 방법은 문화 시설의 균형적인 설립임. 기본적인 문화인프라의 형평성을 통해서 문화 향유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임

○ 하지만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문화는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관계로, 적절하게 이식할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화 소외를 극복할 만큼 정책적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 그래서 이런 문화향유에 주목하는 문화정책은 일차적으로 대중문화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문화복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향유를 지원해주는 생활문화지원 정책으로 분화됨. 전자는 경제적 조건 중심의 '국가 최소기준선'이 문화영역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후자는 과거 예술가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아마추어 창작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창작하면서 누리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과정 어디에서도 시민문화가 독립적으로 나타날 공간이 보이지 않음. 즉, 정책 변화를 중심에 놓고 보면 시민문화는 구체적인 정책 대상을 따로 두지 않았음. 이런 모호함은 시민문화라는 개념을 재발견하도록 함

- 내용을 채울 수 없는 개념으로는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정부에 의해 추진된 주요 문화예술정책에서 시민문화를 구성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실제로 정부가 2008년부터 4년간의 문화정책을 리뷰하면서 제시한 주요 성과에는 시민문화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고, 그 중 생활 속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동극장 재개관'(2009), '대학로 예술가의 집 개관'(2010), '기무사터 열린문화공간 조성'(20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착공'(2011) 등³⁾이 대부분으로 이를 생활 속 문화공간이라 칭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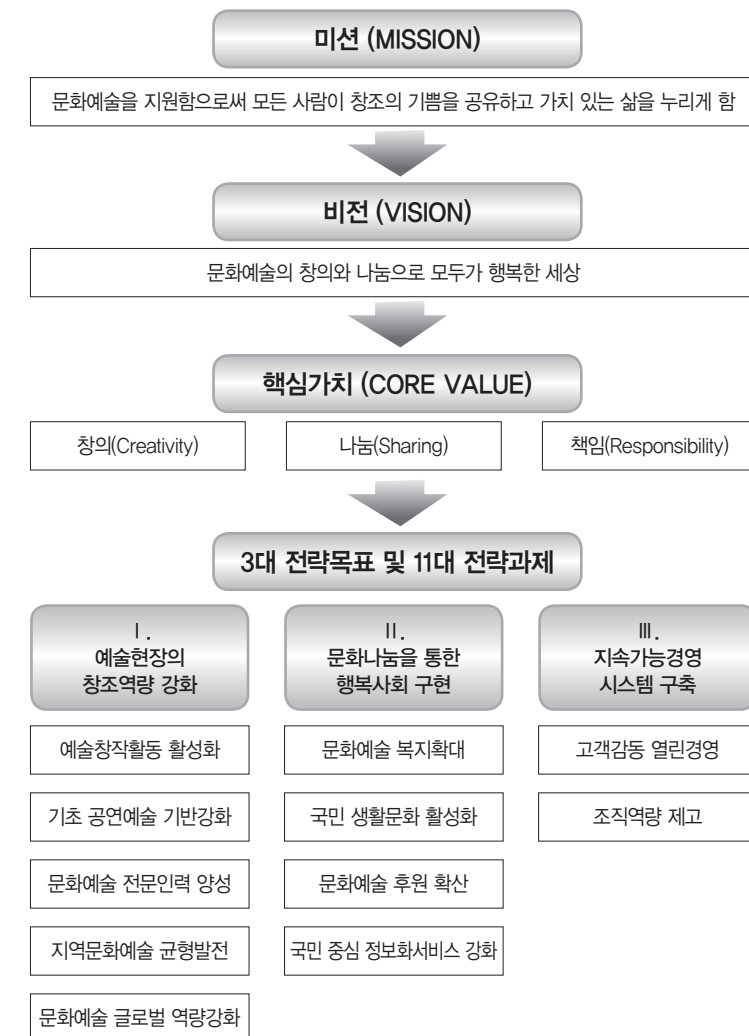
○ 시민문화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가문화정책'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전

부임. 다만 간접적으로 정부의 시민문화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개최한 「미래사회와 문화관광」컨퍼런스의 발표자료 중, 첫번째 발표였던 “포퓰리즘과 문화정책”이 있음. 여기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를 대비시키며 대중문화를 포퓰리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문화예술 포퓰리즘은 문화예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예술, 민중 예술은 각각 그대로 충분한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이나 대중의 이름으로 전통예술, 순수예술(classic arts)을 동일한 시각에서 평가하기 시작하면 순수예술은 질적으로 손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수 예술의 원리는 수월성(秀越性)이며, 대중성은 아닙니다. 대중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성으로서는 문화예술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이 음악의 발전을 이끌고 다빈치, 피카소가 미술의 발전을 선도한 것과 같이, 평균적인 예술가나 평준화, 대중화로는 순수예술이 발달되지는 않습니다. 포퓰리즘의 핵심전략인 반 엘리트주의는 예술의 수월성 원리와 전적으로 상충되는 가치입니다.”

－ 정홍익, 「포퓰리즘과 문화정책」, 『미래사회와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다음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새로운 비전 〈아르코 비전 2020〉을 선보이며 주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 시민문화와 친화성이 있는 내용으로 ‘국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볼 수 있으나, 대상이 소외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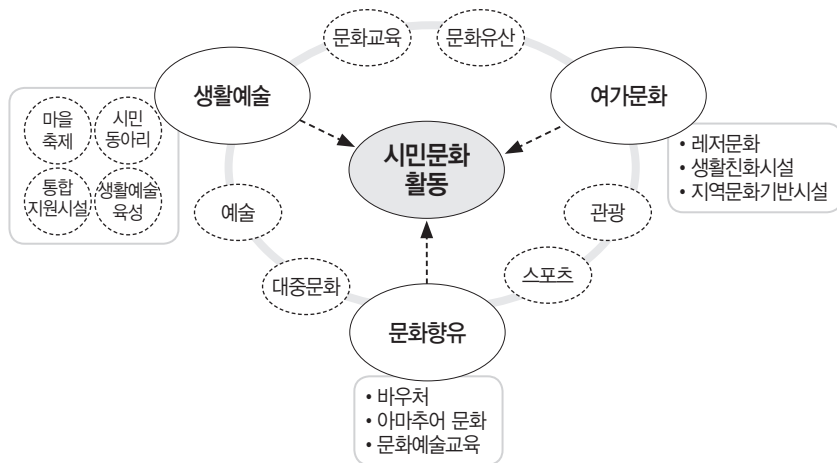


[그림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20〉

-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여가문화는 보편적인 문화복지와 연계가 되며, 이는 전문 예술가와 전문단체를 지원하는데 중심을 둔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일반 국민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개념으로 설명됨

[표 3] 문화복지의 개념 변화⁴⁾

5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경제 제일주의를 탈피 -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적 복지를 언급 - 정책 수단으로서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의 문화복지 사업 추진
문민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 생산적·예방적 복지 주장 - 참여활성화에 따른 복지공동체 형성을 문화복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설정
국민의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정책을 개개인의 감수성 증진보다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창의성을 배양하는데 집중
참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의 범위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재소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명확해짐 - 정책목표도 감수성이나 창의성 증진보다는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성격이 강함
이명박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이용권 사업(바우처)강화 -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축소되고 국가가 빈민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잔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



[그림6] 시민문화 활동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4) '윤소영, 「국민행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방향」, 『문화향유 확대와 국민행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 이와 다르게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기존의 문화정책이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을 단순 전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광역정부 수준의 정책을 모색했다는 특징이 있음
- 이 관점에서 시민문화의 쟁점들을 추려보면, 기본적으로 정책의 시각은 '밖에서 안으로' 향해져 있고 세계 도시 가운데에 문화적 평판을 획득하고 강화하려는 정책방향을 보임
- 창조적 실험장르와 선도예술은 '살고 싶고, 다시 가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재편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고 이 과정에서 문화창작의 주체로서나 문화정책의 수혜자로서 시민이 나타나지 않음
- 다만 명시적으로 '문화로 행복해지는 삶'이 언급되기는 하나 물질적 풍요에서 마음의 풍요로 이행하는 관심의 전환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며 시정목표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전환되면서 15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시민의 생활권 내 문화창조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뒤이어 나온 시정계획⁵⁾을 통해서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생활권 내 시민들의 문화창조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동네예술창작소와 북카페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언급되기에 이르렀음

시민의 생활권 내 문화창조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① 생활권 내 시민들의 문화창조활동 여건 조성
 - 생활권 내 마을형 문화공간 확충 : 동네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등
 - 시민이 만드는 공동체 미디어 지원 : 마을별 미디어센터 설치(50개소, 2014), 우리동네 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 ② 예술가 지원체계 구축으로 창조산업 성장토대 강화
 - 문화예술메세나 : 시와 민간기업의 매칭펀드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시 50% : 기업 50%), 지원건수의 경우 2012년(50건/년)에서 2014년(90건/년)으로 확대.
 -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 창작공간을 다양한 창조주체간 교류공간으로 재설계, 문화예술창조활동을 사회적 생산활동으로 연계

5)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2012, 1. 9.

- 이와 병렬적으로 예술가 지원체계로서 문화예술메세나를 확대하고,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조주체'간 교류공간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세부계획도 내놓았음

- 이런 새로운 서울시 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시민문화의 공간적 범위로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
 - 기본적으로 생활권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활동범위로서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활동 등을 위한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데 주거생활권을 의미함. 즉 시민문화의 공간적 범위로 주거지를 거점으로 하는 왕복이동경로가 핵심축으로 등장하는 것임

3. 시민문화의 개념 _ 시민운동적 측면

- 이상의 법적인 의미와 정책적인 의미로 시민문화에 대한 개념적 탐색을 한정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이를 보충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개념의 탐구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문제점은 법적·정책적 개념의 탐색으로만 한정할 경우,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부재만을 강조할 수 있을 뿐으로 좀 더 생산적인 개념의 도출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임. 통상적으로 법과 정책은 문화적 환경에 대해 '응답'하는 측면에서 구성된다고 할 때, "법적·정책적" 탐색 수준에서 '시민문화'의 부재를 언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탐색일 수밖에 없음
 - 다음의 문제점은 좀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시민문화의 독자성과 정체성의 기원과 관련됨. 기본적으로 시민문화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발되기 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따라서 시민문화의 개념 탐구는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문화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함
-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7~80년대 민중예술운동으로 불려진 저항적인 창작활동 외에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흐름을 지칭하고자 함
 - 8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중문화의 팽장은 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상업문화적 특징이 압도하게 됨. 또한 어느 정도 완수된 정치적 민주화 이후 과거와 같은 정치경제적 사회운동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 속에서 IMF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주의적 경제발전에 대한 반성 역시 급격하게 확산됨

- 문화운동은 사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성숙에 큰 영향을 받았음
 - 다시 말해서 90년대 후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문화민주주의'는 사실 시민사회의 발전과 확장에 다름 아니며, 그와 같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가능케 하는 시민의 역량 강화라는 맥락이 존재했던 것임

그동안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을 사회발전의 유일한 방식인 양 여긴 결과 삶의 터전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사회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바꿀 시점이다. 사회발전은 인간을 위한 발전이며, '인간발전'을 이루려면 문화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보다 꿈과 상상과 자아의 실현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이제 이윤 축적을 위한 착취나 개발, 권력 획득을 위한 억압, 지배 유지를 위한 통제를 능사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발전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중략) 문화의 영역에서, 문화의 힘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와 연대를 통해 문화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문화의 사회적 공공성을 높여 '민주적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예술운동, 지식인운동,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할 필요를 느끼며, 각계각층, 제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주민, 주부, 학생, 노동자, 여성, 전문가, 지식인, 예술가의 참여를 환영한다.

- 문화연대 창립선언문 1999. 9. 18.

- 실제로 전문적인 문화예술 창작자 단체를 벗어난 대중적인 문화시민운동 단체로 등장한 문화연대의 창립선언문을 참고할 수 있음
 - 경제적 성장에 대비되는 문화적 성숙이 제시되면서 문화적 수단이라는 대안적 운동의 방식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무엇보다, 문화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문화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민주적 시민사회'의 구현이라고 선언함
- 즉 시민사회의 팽창에 대해 시민사회의 성숙을 대별시키면서, 기존의 전문영역에 머물렀던 문화예술분야를 보통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사회운동적 맥락에서의 시민문화는 ‘시민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의 민주화, 나아가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토대로서 제시된다고 할 수 있음
- 정리하자면, 시민사회에서 등장한 시민문화는 80년대 후반에 정착하게된 제도적 민주주의의 내적 성숙을 위한 환경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 문화권의 관점에서 본 시민문화 활동

운동영역	문제설정	이론적 검토	구체적인 실천사례
표현의 자유의 의지	문화생산자의 권리 문화소비자의 권리	만들 권리 / 볼 권리 감수성의 정치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혁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청소년 문화권 동성애 문화권 이주노동자 문화권	소수자의 정의 소수문화의 검토	대안적 청소년 문화 활동확대 성소수자 문화 커뮤니티 확대 이주노동자 문화적 활동보장
문화적 접근의 권리	퍼블릭 액세스운동 문화시설의 공공성 시청자주권 운동	공공문화의 정의 퍼블릭 액세스 운동	문화기반시설의 이용확대 방안 시민들의 자치문화 활성화
문화 공공 서비스의 권리	문화비용의 증가 주5일 근무제실시	공공문화서비스의 개념	문화이용료 인하 운동 문화소외자의 문화향수권 확대
문화예술 교육의 권리	평생교육권 문화재생산 교육	문화교육의 이념과 방법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평생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환경의 권리	도시생태권	문화, 도시, 생태에 대한 사회적 접근 및 문화연구	막개발반대 문화행동 보행권 확보 도시생태공간의 확대



[그림7] 시민문화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흐름

4. 개념의 예비적 설정

- 이상의 예비적 탐색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의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시민문화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특징들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는 시민문화의 주요한 영역들을 판별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구분할 것임
- 개념의 분할
 - 시민문화라는 개념을 순차적으로 분할하면서, 시민문화라는 개념의 구성요소들을 나누어 볼 수 있음

(1) 문화(정책)

- 정책의 하나로서 문화정책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근원적 질문에 봉착해 있음

2005년 이후, 그간의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로또기금의 유입 등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정책은 크게 한번 바뀌었다. 필자 또한 당시 예술지원이 갖는 역진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예술지원 사업이 작가 개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원가 목적성을 지닌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보다 '다양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소수의 관람을 위해 다수가 세금을 내 재원을 조성하는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필자의 주장이었다.

- 라도삼, 「예술향유 및 생활 예술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대토론회』, 2013. 4.

- 위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문화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특히, 기존 문화정책의 빈 공간을 정확하게 지적한다고 할 수 있음. 그것은 문화 혹은 예술정책이 이른 바 ‘사회’와 맺는 관계의 속성에 대한 것임
 - 이는 일방적인 진흥정책으로 일관된 문화예술 정책이 과연 정책목표를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정책을 조준하였는지, 이로부터 설정된 정책과제들을 적절하게 수립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임
- 시민문화라고 했을 때, 기존의 예술진흥정책이 보여 온 일방향성, 좀 더 정확하게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중단시키는 수혜적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시민문화의 고유성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시민문화는 그 대상 자체가 다층적인 복합주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문화 정책 일반은 지원이나 수혜와 같은 일방향성 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기존의 예술정책의 지원구조가 단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별 창작자에 대한 지원으로 수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시민문화의 정책조건은 기본적으로 개인 자체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사이, 즉 관계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음

(2) 시민+문화

- 시민문화는 개인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주체’로서 대중의 상태를 지칭함
- 시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주체라기 보다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내에 위치한 역사적 개념임
- 시민문화는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문화적 개입을 의미하고, 그 대상은 창작자 개인이나 대중의 일원인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민’일 수밖에 없음
- 시민문화가 주목하는 정책적 맥락은 그와 같은 역사적 주체로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그런 시민이 지니고 있는 시민성을 지키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문화(정책)라고 할 수 있음

(3) 시민+(사회)+문화

- 문제는 이런 시민이 무균질의 진공공간에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즉, 시민을 시민으로 있게끔 하는 공간적 정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라고 불려왔던 영역임
- 시민문화의 정확한 의미는 시민사회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혹은 그 사회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문화적 맥락에 주목하는 것임
- 예시적으로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힘든 고급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간단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을 문화주체로 상정한 시민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시민문화라고 할 때 참여나 직접행동 등 시민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주체화에 직접적인 사업 목적을 지니는 방식으로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엘 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시민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관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 때문에 사라져 버린 거리 쓰레기통을 주민들과 함께 폐품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거리 곳곳에 둬으로써 시민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시민문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4) 시+민+사회+문화

- 결론적으로 시민문화는 시민사회가 도시정부와 맺는 관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시민문화의 활성화는 개인의 예술창작, 예술향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풍성하게 하고 외려 그것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문화사업들을 의미함
- 우리가 탐색해야 할 시민문화의 영역은 행정의 문화정책 목표로 수렴되

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정치적 목표에 수렴되는 상향식 정책이며 최소한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이라고 잠정적인 개념정의를 할 수 있음

시민+문화

- 시민문화는 개인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주체로서 대중의 상태를 지칭함
- 시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주체라기 보다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내에 위치한 역사적 개념
- 따라서 시민문화는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문화적 개입을 의미하고, 그 대상은 창작자 개인이나 대중의 일원인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민'일 수밖에 없음
- 이런 면에서 보면, 시민문화가 주목하는 정책적 맥락은 그와 같은 역사적 주체로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그런 시민이 지나고 있는 시민성을 지키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문화(정책)

시+민+문화

- 시민문화는 시민사회가 도시정부와 맺는 관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시민문화는 활성화는 개인의 예술창작, 예술향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풍성하게 하고 외려 그것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문화사업들을 의미
- 따라서 시민문화의 영역은 행정의 문화정책 목표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정치적 목표에 수렴되는 상향식 정책이며 최소한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이라고 잠정적인 개념정의를 할 수 있음

[그림8] 개념 분할을 통한 시민문화의 재개념화

(5) 개념의 접합

- 이렇게 분할된 시민문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계층으로서 '시민'과 공간적 특징 및 생활권으로서 '시민사회'를 고려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표현의 보장, 즉 문화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목표'를 지님
- 이런 3가지 요소의 접합은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외려 추가적인 요소를 통해서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지역성'이라는 측면임
-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의 지역으로서, 시민 개개인이 속해있는 생활권들의 복합적인 연합체가 바로 서울시와 같은 물리적 범위에서 유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문화의 영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개념상 불가능한 정책영역이며, 따라서 도시정부의 고유한 문화정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의 개발이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유무형의 자원으로 문화가 충분히 확보되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수준을 이야기할 수 도 있다. 이는 대도시만이 아니라 중소도시 및 농어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의 동력이자 구심으로 문화예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의 동력으로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널리 공유되어 있으며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생태와 지속 가능성이 고려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통해 지역단위의 문화 활동을 위한 장려와 고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전제로 한다. 지역기반의 예술가나 단체들의 자생력이 지역으로부터 확보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해야 한다.

- 이선철,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제고」, 『문화예술대토론회』, 2013. 4.

- 시민문화라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주체로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시민문화의 촉진과 지원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문화활동”을 의미함
- 이런 맥락에서 시민문화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문화활동 자체를 정책적 목표로서 설정한 행정 행위라고 할 수 있음

5. 시민문화의 자리 잡기

- 이상의 개념 탐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정책 영역으로서 '시민문화'는 구체적으로 정립된 바가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실상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의 잔여적인 정책 공간이 넓게 시민문화영역으로 고려되었을 뿐이며, 이 역시도 진흥정책의 변화에 따라 범주와 내용이 변화되어 왔음
- 시민문화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서 특징적인 '시민 주체성'에 대한 것임. 도시공간에서 시민은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이나 마을 단위의 주민과는 다른 사회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주체임
- 이 연구에서는 시민문화라고 했을 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의

시민적 주체성을 계발하고 강화하는 문화영역이라고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시민문화정책이라고 함은 이와 같은 시민주체성의 계발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이라고 정의함

- 이런 개념적 정의는 그간 시민문화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은 시민문화정책의 ‘지도그리기’를 위한 선행적 작업이므로, 이런 정의가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직접적인 평가 기준으로 제안될 필요는 없을 것임

영역 주체	주민	시민	국민
사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거버넌스 (참여예산 등)	국민의식 함양 및 고취
문화	마을카페, 동호회 활동지원	시민역량 개발, 시민관계망 연결	문화시설 균형배치, 국민관광정책, 문화산업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활동 및 보호	노동-고용 정책

[그림9] 주체-영역 구분을 통해서 본 시민문화의 자리

III. 서울의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1. 서울시의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2.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3. 서울의 기초자치단체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_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III 서울의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1. 서울시의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전 세계적인 대도시의 ‘문화정치경제’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의 공시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독특한 지방행정 특징이라는 통시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문화정치경제로의 전환으로 이해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창조도시’론이며, 이는 여타 도시이론 중에서 서울시의 문화정책 특징을 조망하는데 실용적인 분석틀을 제공함
- 우선 공시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1970~80년대 세계의 대도시가 물리적 집중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등장한 ‘창조도시’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은 비도시 공간과 비교할 때 자원과 공간의 집적을 통해서 발생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성장이 가능했다고 평가됨. 하지만 이와 같은 집적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었던 도심 기능의 쇠퇴와 생산기능의 외부화 탓에 도시의 자생적 능력에 대한 의심이 제기됨
-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화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능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고유한 성장 조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발견’이 나타나는데 여기의 핵심이 재화자체의 생산이 아니라 재화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 즉 창조라고 불리는 특징이 그것임
 - 이와 같이 대도시에서의 문화정책은 그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된 ‘예술진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책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련의 ‘창조도시’에 대한 담론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하지만 이런 공시적인 측면은 한국의 지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

한 구부러짐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행정전달체계로서 한국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뜻함

-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제약과 동시에 법률제정권한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 독립적인 지방문화정책의 영역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으로 나타나게 됨

- 서울시 문화정책에 있어 앞서 언급한 공시성의 측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민선 4기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문화정책의 흐름이 민선 5기에 이르러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수렴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에서는 민선 4기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과 여기서 시민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후 민선 5기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라는 비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 문화정책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서울시가 제시한 시민문화의 고유성을 탐색할 것인데, 전체 사업의 구성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중앙 행정의 전달체계로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가지는 한계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것임

1.1. 민선 4기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 창의도시 마스터플랜은 민선 4기 서울시가 출범하면서부터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소위 ‘컬쳐노믹스’와 2007년부터 등장한 도심재생프로젝트가 결합된 산물로 볼 수 있음
 - 이 마스터플랜의 특징은 그간 단발적 혹은 단속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서울시의 각종 사업들을 창의도시라는 틀을 기준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창의도시사업은 분명한 계량적 목표를 드러내고 있는 사업임. 이 중에서 창의문화인구의 증가를 성과지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창조도시’론에 상당부분 의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7년 공개된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에는 “세계수준의 창의문화인구 창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가치창조,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육성, 도시매력 창출로 관광경쟁력 강화”라는 4가지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각각이 ‘창의문화인구, 도시브랜드, 문화산업, 관광경쟁력’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계량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음

[표 5]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목표

세계수준의 창의문화인구 창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가치창조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육성 도시매력 창출로 관광경쟁력 강화				
목표	창의문화인구 (70만명)	도시브랜드 (20위권)	문화산업 (세계5위)	관광경쟁력 (20위권)
현황	42만(06년) 비중 8.5%	44위(06년) 건축물 등 도시의 외관상 매력 54위	세계 9위(06년) 비중 2.4%	세계 31위(08년) - 가격 106위 - 자연자원 80위
비교	런던 55만명 비중 12%(05년)	17위 베를린 22위 동경	5위 중국 5.4%	10위 프랑스 23위 일본

*서울특별시,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007.

- 이런 4개의 목표를 바탕으로 10가지 핵심추진과제가 설정되는데, ‘예술적 창의기반, 도시의 문화환경, 도시가치와 경쟁력’이라는 3가지 범주로 제시되었음

[표 6]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10대 핵심추진과제

- 2007년을 마스터플랜의 기준연도로, 20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추진

[예술적 창의기반]

1. 유희시설이 문화예술의 창의발신지로 바뀝니다
2. 유구한 역사를 복원하여 서울의 매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도시의 문화환경]

4.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 특화지역을 육성하겠습니다
5. 한강을 물과 사람이 만나는 서울상징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6. 문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곳곳에 문화의 샘을 만들겠습니다
7. 물처럼 공기처럼 생활속에 문화가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치와 경쟁력]

8. 서울을 세계 최고의 디자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9. 문화의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0.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007.

- 흥미로운 것은 창의문화도시의 4대 목표 중 하나인 창의문화인구의 육성이라는 것이 애초 그것이 제안된 맥락대로 문화예술 창작인구, 좀 더 직접적으로는 문화 산업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인력의 창출이라는 맥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 실제로 시민문화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은 ‘문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의 샘을 만든다는 것과 생활 속의 문화를 활성화겠다는 목표를 들 수 있음
 - 이중 문화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의 샘은 창작공간조성 사업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생활 속의 문화 활성화’라는 맥락은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대표 축제의 개발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시민문화의 영역 중 핵심적인 가치 영역이라고 보았던 “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문화를 두텁게 만든 정책영역”으로서 시민문화정책 영역은 민선 4기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 실제로 전통적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마스터플랜에 따른 변화를 크게 찾아볼 수 없음

-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 제안된 2007년과 마스터플랜 시행 1차년도인 2008년의 저소득층 문화인프라지원 사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책나눠주기〉 정도이며, 이 역시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이나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못함

[표 7] 저소득층 문화인프라지원 사업 현황

2007년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국고보조) 21개 단체에 지원, 서울문화재단 시행 2억 8천만원 • 사랑의 문화나눔 사회복지관 등 기관 방문, 서울문화재단 4억 9천 7백만원, 공연회수: 30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국고보조) 22개 단체에 지원, 서울문화재단 시행 3억원 • 사랑의 문화나눔 사회복지관 등 기관 방문, 서울문화재단 시행 6억원, 공연회수: 300회 •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 저소득층 자녀 60명, 건국대 산학협력단 2억원 • 저소득층 자녀 책나눠주기 아동복지시설 10개소(아동 30명 이상, 도서 500권 이상 비치가능시설) 5천만원

-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은 민선 4기 막바지에 '디자인서울 10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수렴되는데, 이는 창의문화도시라는 문화도시 비전이 사실상 문화산업 정책과 함께 도시의 물리적 외관을 바꾸는 정비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

[표 8] 서울시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과 디자인서울 10개년 계획

구 분	발표 시점	주 요 내 용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으로서 '컬처노믹스' - 예술창작공간 마련, 예술인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성북 전통문화체험관광벨트 조성, 아트펀드 500억 조성,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관광지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디자인서울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가지의 정책과제와 16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 - 디자인 관련 기구의 확대 및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작성됨

- 종합적으로 보면 민선 4기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은 그간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다르게 문화정책 자체를 독자적인 도시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시민문화의 부재라는 기존 문화정책의 한계를 반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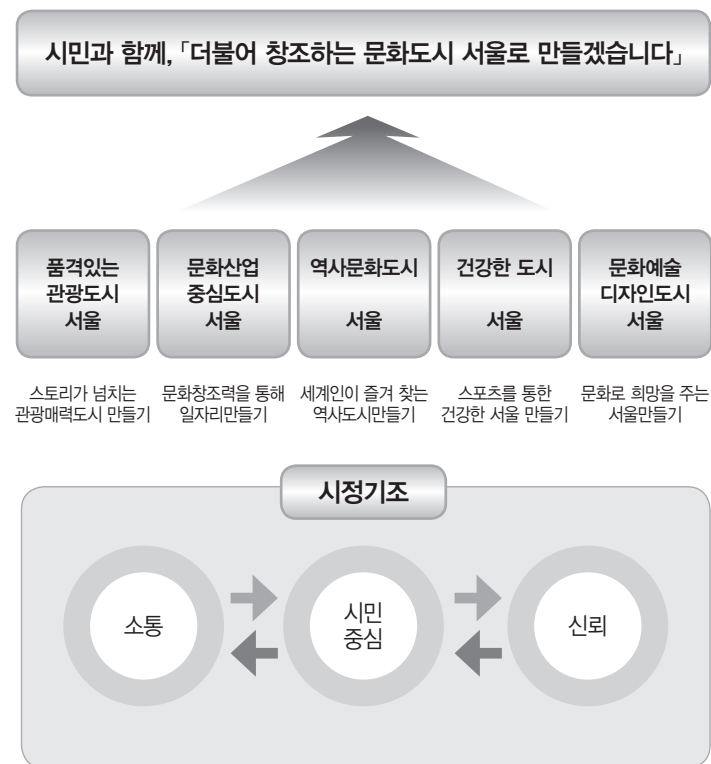
- 실제로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 사실상 도시디자인 정책으로 수렴되어 디자인서울 10개년 계획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문화정책의 왜소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지역별 창작지원공간의 조성이나 서울시 축제의 활성화와 같이 전반적인 도시의 문화인프라가 확장된 것은 긍정적이나,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생산자나 적극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관객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는 더욱 심화되었음

- 민선 4기에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여기서 시민문화의 토대가 되는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은 동시기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동시에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2006년 6월 18일 시장이 시의회에 회부하여 6월 26일에 시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6월 29일에 공포되는 상당히 빠른 입법절차를 보였는데, 이는 서울시의 동 조례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문화도시'라는 상이 여전히 시민문화

속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확산되고 공유되기 보다는 서울시에 의해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속성을 보였다는 한계가 있음

1.2. 민선 5기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 이후 새롭게 등장한 민선 5기의 경우에는 민선 4기의 디자인서울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서 새롭게 문화정책의 비전을 내놓았는데,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라는 문화정책의 상이 대표적임
- 전반적인 시정방향이 시민을 중심으로 놓고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문화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기대되었음



[그림10] 서울시 민선 5기 문화정책 비전

*서울시누리집

-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화정책의 방향은 민선 4기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 설정한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

으로 나타났음

- 우선 '품격있는 관광도시, 문화산업 중심도시, 역사문화도시, 건강한 도시, 문화예술디자인도시'라는 5가지 정책 목표가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상의 '문화산업', '관광경쟁력', '도시브랜드'라는 주요 정책 목표와 유사성이 높음
- 굳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면 생활체육이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다소 간 높아진 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런 전제에서 수립된 문화예술정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민선 5기 문화정책 중 특히 시민문화의 위상에 대해 기존과의 상이점보다는 유사점을 발견하기가 더욱 수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9] 서울시 문화정책 중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문화예술로 시민만족도 제고>

문화예술 육성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진흥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서울문화의 밤	
사랑티켓	서울드림페스티벌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지역특성문화사업 등	연등축제행사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 축제(행사) 지원	서울 세계불꽃축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학의 집 서울 운영 지원	국악한마당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	서울사진축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문화바우처사업	국악로 국악의 향연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지원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마을미디어 활성화	하이서울페스티벌	청년문화학교 운영
문인 문학제 지원	(서울페스티벌 2013)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서울뮤지컬페스티벌 2013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서울시누리집

- 기본적으로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문화예술정책의 세부사업 중에서 민선 4기와 비교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문화예술 육성지원 항목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항목에서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진흥 항목에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정도를 꼽을 수 있음

- 민선 5기 문화정책은 기존 민선 4기 문화정책에 비해 시민문화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능동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특징임
 - 이런 특징은 문화정책보다는 사실상 생활권 중심의 공동체 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 상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문화부서의 사업으로 편제된 데에 따른 것으로 문화정책 비전 자체의 변화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구체적으로 민선 5기 문화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은 2013년 예산편성 방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업방향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역사문화도시 정책, 관광 정책,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으로 구분됨

[표 10] 서울시 2013년 사업방향 : 문화분야

- ▶ 서울미래유산 발굴 · 보존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양도성의 지속가능한 보존 · 활용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 서울매력명소 스토리텔링 발굴 및 관광명소화를 통하여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 활용한 스마트 관광 활성화와 MICE산업 육성지원
- ▶ 시민 누구나 함께 하는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

* 2013년 서울시예산안 설명자료, 2012. 11. 1.

- 이와 같은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편성된 세부사업들은 크게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 진흥,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관광도시 육성, 독서문화 진흥’으로 편성되어 있음

[표 11] 2013년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사업

- 문화도시 서울 구현
 - 문화시설 및 출연기관 운영지원
 -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4), 시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열린예술극장 운영 등
 -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기반 네트워크 구축
 -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서울시 대표 B-boy단 운영, e-문화 복덕방 운영 등
 - 문화향유 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 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문화행사 개최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마을미디어 활성화
 - 서울시 대표축제 개최,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국악한마당 등
 - 문화예술 교육지원
 -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 문화유산의 보존 · 복원 및 문화재 관리
 - 근현대미래유산 수집 · 보존관리,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1,443개소) 보수
 - 동네박물관 건립지원, 문화재 복원 및 표석 설치, 무형문화재 및 전수시설 운영 등
 -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시립미술관 운영
- 한양도성 보전 관리활용
 - 한양도성 보존 · 관리 및 2015년 유네스코 등재
 - 한양도성 복원, 탐방로 주변 정비, 유네스코 등재 대비 자료 구축, 학술행사 등
- 시민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 시민체육공간 확충
 - 서남권 동아구장 건립,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신도림복합체육센터 등 7개소 지원 등
 -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 재능나눔, 여성 및 어린이 축구교실 등
 - 서울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잠실종합운동장 등 6개)
-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 관광자원 · 상품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 관광상품 품질제 도입, 서울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 활용, 관광특구 활성화
 - 관광안내소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102명) 운영,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등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MICE 해외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등
 - 서울 도시브랜드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
 - 서울관광 해외 디지털 통합 마케팅, 해외관광 교역전 참가,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서울관광 설명회
 - 테마별 명소별 서울관광 대표 지도 제작, 의료관광 연계상품 개발 등
 - 전략적 해외 마케팅

- 글로벌 매체 활용 서울마케팅, 뉴미디어 활용 서울마케팅 등
-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 운영
 - 전통무예 시범운영 및 체험행사 운영, 의료관광 연계상품 개발 운영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및 서울도서관 운영
 - 미아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외 7개소 지원, 우리동네 북카페 운영지원
 - 명사의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공(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 등

- 구체적인 세부 사업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공약사업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업들은 민선 4기에서 수행되었던 문화정책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민선 5기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민선 4기와는 전혀 다른 시정운영방향에 따라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편성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민선 4기, 민선 5기 서울시 문화정책의 유사성은 서두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통시적인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민선 4기와 민선 5기 문화정책의 유사성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의해 전달되는 문화행정 전달체계로서의 속성에 기인하는 탓이 큼
- 결론적으로 서울시 수준에서 새로운 시민문화정책을 탐색하고 시행하는데에는 서울시 문화부서를 통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특히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문화전문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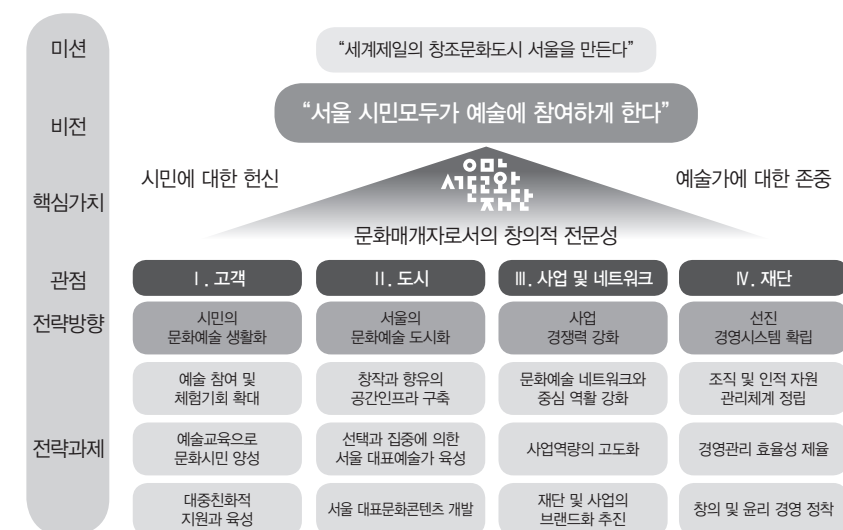
2.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에서 설립한 지역문화재단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서울시가 수립한 문화예술정책 기본방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님
 -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의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정책 비전과 세부 사업의 영역을 지님

- 아래에서는 앞서 살펴본 민선 4기, 민선 5기 서울시의 문화정책 흐름에 비추어 3기, 4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비전과 세부 사업을 살펴보고 이 중 시민문화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의 특징을 평가해보고자 함
-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정책의 분석 대상 및 범주 선정시 서울문화재단이 명시화하고 있는 시민문화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였음

2.1. 서울문화재단 3기의 '세계 제일의 창조문화도시' 사업 비전

- 재단 3기의 마스터플랜은 민선 4기 서울시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컬처노믹스'가 정립기를 거쳐 확산기로 접어드는 단계에 맞춰 서울시 문화정책에 조응 및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계 제일의 창조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라는 미션 하에, ‘창의문화도시’ 시정 방향에 조응하는 사업(국제 행사, 대표 축제 등)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서울 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하게 한다”는 비전을 강조하며, ‘창의문화도시’의 실내용에 시민문화적 지향을 보완하였음. 이는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화’ 전략방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향유(참여/체험확대)와 교육(문화시민 양성)이라는 시혜적 관점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음



[그림11] 서울문화재단 3기 비전

*서울문화재단, 新비전전략체계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2009.

- 시민문화지원사업이 속해 있는 재단 3기의 예술지원사업 구분을 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문화진흥사업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창작지원사업, 예술지원 체계와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예술지원 시스템 강화로 구성됨
 - 시민문화진흥사업 중에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배달서비스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로 희망드림>은 시민문화정책이라기 보다는 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정책에 가까움
 - 또한 자치구 문화공간과 자치구 네트워크 문화적 인프라에 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시민문화정책으로 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시민대상 문화 사업을 제외하고, 시민예술활동지원과 시민축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표 12] 서울문화재단 3기 주요 예술지원사업 현황

사업유형	사업명(2010년)	사업명(2011년)
시민문화 진흥사업	문화배달서비스	
	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 지원	시민축제 지원
	자치구 문화공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자치구 네트워크	
	예술로 희망드림	예술로 희망드림
예술창작 지원사업	창작활성화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대표예술축제	서울대표예술축제
	우수예술축제 육성	우수예술축제 육성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예술가 인큐베이팅	유망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 예술단체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예술지원 시스템 강화	수시기획지원	수시기획지원
	예술지원체계/관리시스템 개선	예술지원체계/관리시스템 개선

* 이동연 외,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개선 연구보고서』, 서울문화재단, 2013.

- 시민예술활동지원과 시민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원금 규모가 적게는 2백만원부터 많게는 3천5백만원까지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총 지원금액에 비해서 지원건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소액다건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아마추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시민 예술동호회를 육성하고 시민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표 13] 서울문화재단 3기 사업 중 시민문화사업 현황

연도	사업유형	지원금 규모	지원 건수	지원금액	지향점
2010	시민예술 활동지원	2백만원 ~ 5백만원	90건	237,500천원 (평균2,638천원)	자생력 있는 시민
	시민축제지원	5백만원 ~ 3천5백만원	20건	252,000천원 (평균12,600천원)	예술동호회 육성
2011	시민 예술 활동 지원	① 동호회지원 정액지원	61건	122,000천원 (평균2,000천원)	시민문화향수 확대, 발표활동 및 발표의 장 마련
		② 생활속 예술시장 지원	30건	127,800천원 (평균4,260천원)	
	시민축제지원	5백만원 ~ 3천만원	20건	228,000천원 (평균11,400천원)	

* 서울문화재단, 내부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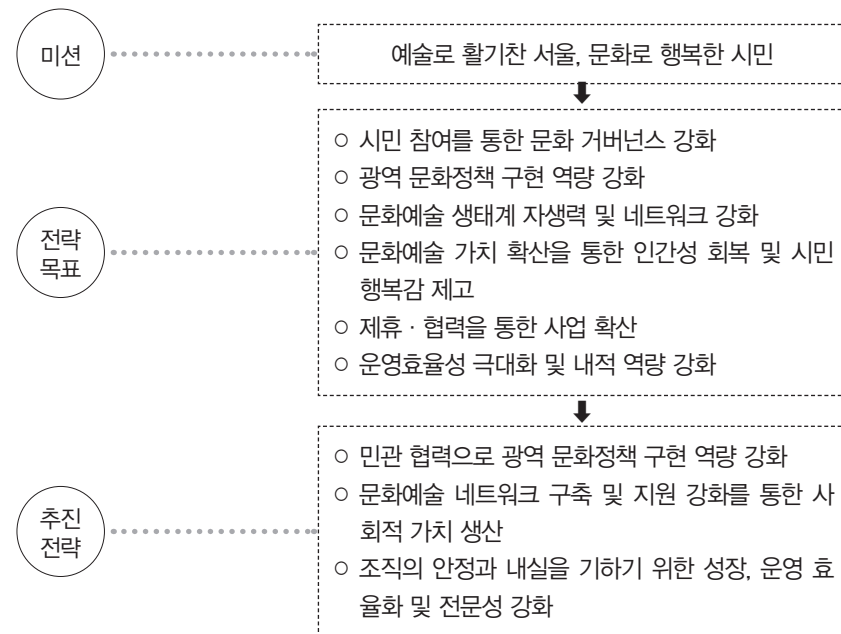
- 소액다건 중심으로 지원하는 시민문화사업은 잠재되어 있는 시민 주체의 역량을 발굴하거나 강화하는 목적의식적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된 아마추어 문화예술역량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 이에 따라 시민문화사업의 성과는 지원 건수와 지원 대상의 직접적인 만족도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나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확대와 같은 질적 평가를 하기 어려움

2.2. 서울문화재단 4기의 ‘우수예술작품을 서울시민의 생활속으로’ 사업 비전

- 재단 4기의 마스터플랜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예술 생태계와 문

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재단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수동적인 주체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문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재단 3기와는 다르게 대외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 함양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활력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이라는 내부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전략 목표를 보여줌



[그림12] 서울문화재단 4기 사업 비전

*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 2012.

- 세부적인 예술지원사업의 분류를 3기 때와 비교해보면 ‘시민문화진흥사업, 예술창작지원사업, 예술지원 시스템 강화’가 ‘시민문화지원, 전문예술지원, 지원시스템’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크게 세 파트로 나뉘지는 구성은 그대로 유지
- 몇몇 사업의 명칭 및 분류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분류와 특히 시민문화 지원사업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서울문화재단 4기 예술지원사업 현황

사업유형	사업명
시민문화지원	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지원
	서울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지원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전문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유망예술육성지원
	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서울문화기업 육성지원
지원시스템	예술축제콘텐츠 교류지원
	예술지원체계개선

* 이동연 외,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개선 연구보고서』, 서울문화재단, 2013.

- 시민예술활동지원과 시민축제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으로 재단 3기와 유사한 방식을 택함
- 재단 4기로 접어들면서 마스터플랜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시민문화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3기와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함으로서 재단의 시민문화에 대한 자체적인 정의와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줌
- 2013년에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신설되었지만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거점사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재단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15] 서울문화재단 4기 예술지원사업 중 시민문화사업 현황

연도	사업유형	지원금 규모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향점
2012	시민예술 활동지원	2백만원 ~ 5백만원	98건	240,000천원 (평균2,449천원)	아마추어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시민 축제지원	5백만원 ~ 3천만원	22건	220,000천원 (평균10,000천원)	
2013	시민예술 활동지원	2백만원 ~ 5백만원	71건	150,000천원 (평균2,113천원)	아마추어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거점사업 우대
	시민축제지원	5백만원 ~ 2천만원	17건	150,000천원 (평균8,824천원)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 지원사업	5백만원 ~ 1천만원	15건	147,340천원 (평균9,823천원)	

* 서울문화재단, 내부자료 재구성.

- 결론적으로 재단 3기와 4기는 질적으로 상이한 사업 비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분류 형태와 시민문화의 세부적인 사업 유형에 있어서 큰 차별점을 보이지 않음
- 이런 특징은 시민문화정책이 재단의 사업 비전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무엇보다 시민문화사업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사업영역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직접적인 방증이 된다고 할 수 있음

2.3.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분야 세부 현황 및 한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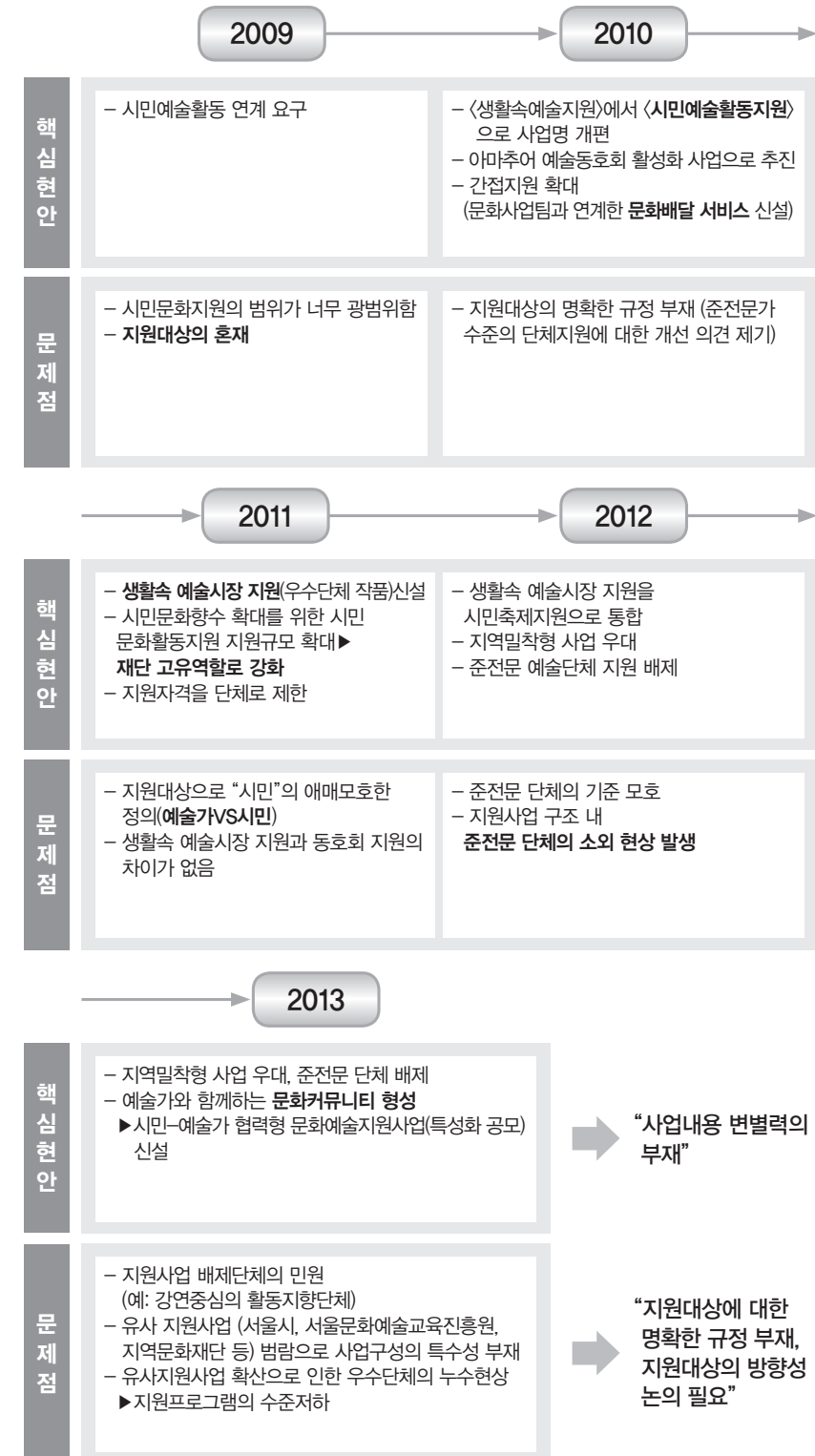
-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추진방향
 - 시민예술활동지원 :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시민축제지원 : 지속가능한 자생력 있는 아마추어 시민축제 발굴 육성 지원

[표 16]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현황

연도	사업유형	지원금 규모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향점
2009	생활속 예술지원	2백만원 ~ 1천만원	205건	937,000천원 (평균 4,505천원)	생활 속 문화클럽활동 (Of the citizen) 시민이 만드는 예술사회지원 (By the citizen)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For the citizen)
	시민축제 지원	5백만원 ~ 1억	24건	450,000천원 (평균 18,750천원)	
2010	시민예술 활동지원	2백만원 ~ 5백만원	90건	237,500천원 (평균 2,638천원)	자생력있는 시민 예술동호회 육성
	시민축제 지원	5백만원 ~ 3천5백만원	20건	252,000천원 (평균 12,600천원)	
2011	① 동호회 지원	2백만원 정액지원	61건	122,000천원 (평균 2,000천원)	시민문화향수 확대, 발표활동 및 발표의 장 마련
	② 생활속 예술시장 지원	2백만원 ~ 5백만원	30건	127,800천원 (평균 4,260천원)	
	시민축제 지원	5백만원 ~ 3천만원	20건	228,000천원 (평균 11,400천원)	
2012	시민예술 활동지원	2백만원 ~ 5백만원	98건	240,000천원 (평균 2,449천원)	아마추어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시민축제 지원	5백만원 ~ 3천만원	22건	220,000천원 (평균 10,000천원)	
2013	시민예술 활동지원	2백만원 ~ 5백만원	71건	150,000천원 (평균 2,113천원)	아마추어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거점사업 우대
	시민축제 지원	5백만원 ~ 2천만원	17건	150,000천원 (평균 8,824천원)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 예술지원사업	5백만원 ~ 1천만원	15건	147,340천원 (평균 9,82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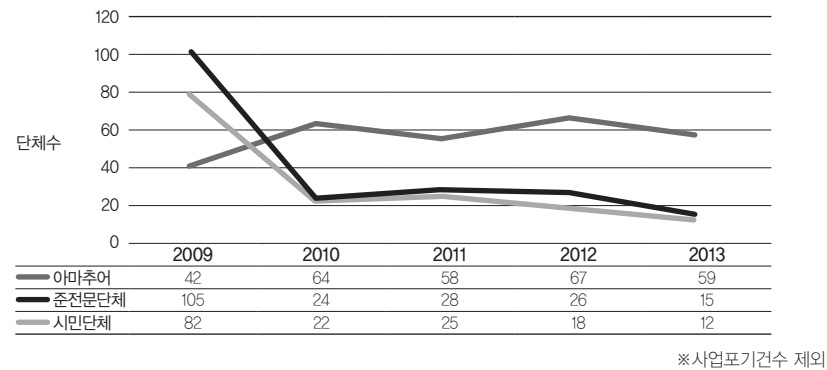
[표 17]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구성 용어정의

구분	분류	내 용	사 례
수행 주체	아마추어	회원자신의 문화활동 및 역량강화에 집중된 예술 동아리 문화향유 > 예술창작	소월인물스케치 〈소월인물스케치 전시회〉
	준전문 예술단체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의 대부분 예술창작인 예술가집단 문화향유 > 예술창작	한국시조명인협회 〈전국시조시인정가명인전〉 사단법인 신명나눔 〈신명으로 찾아가는 나눔 공연〉
	시민단체	비예술단체, 주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운영 조직 문화활동은 단체 주활동 중 일부에 해당	책읽은 엄마책읽은 아이, 〈나랑같이놀자〉 천상병시인기념사업회, 〈노원구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화축제한마당〉
수혜 대상	단체회원/일반시민	회원자체 향유가 목적이거나,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풍류회 〈풍류의 밤〉
	지역주민	특정 지역주민을 타겟으로 커뮤니티 활성화가 주요 목적인 사업	(사)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축제〉
	문화 소외계층	어르신, 다문화, 장애인 등 특정 문화 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	꽃누리국악예술단 〈인생은 70부터 열썬구 좋다〉
사업 성격	동아리 발표	병원전시, 공연발표 등 회원들이 모여 자체적인 발표회 형식으로 하는 행사	직장인밴드연합회 〈직장인밴드페스티벌〉
	찾아가는 공연	병원, 복지관, 학교 등 문화예술의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연	세상을 노래로 채우기 〈4개의 만남, 영상, 그림책 창작음악극〉
	지역 활성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형태로 기획되거나,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모기동 마을축제〉
	일반 행사	폭넓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사업	마들농요보존회 〈청소년모심기체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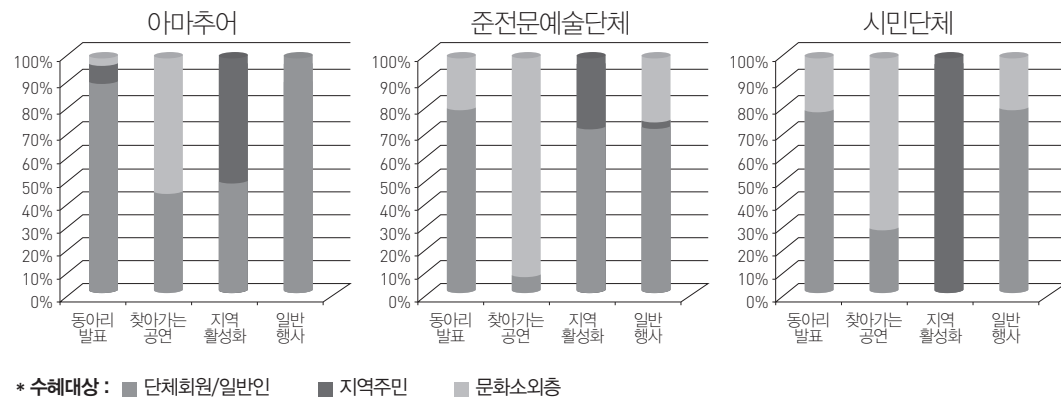


[그림13]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핵심현안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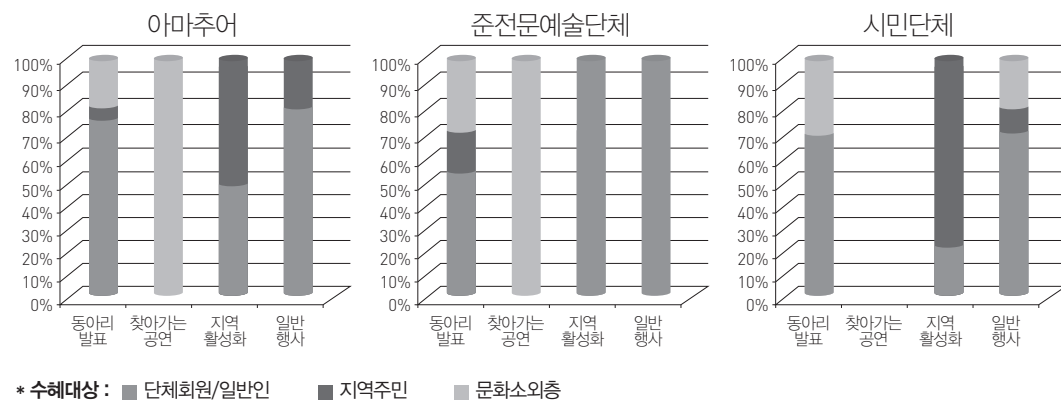
지원주체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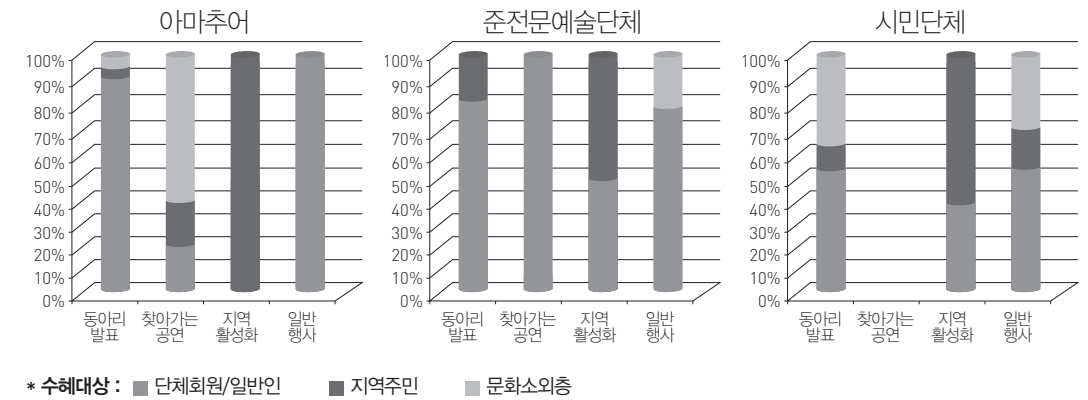
2009년 수행주체별 지원 선정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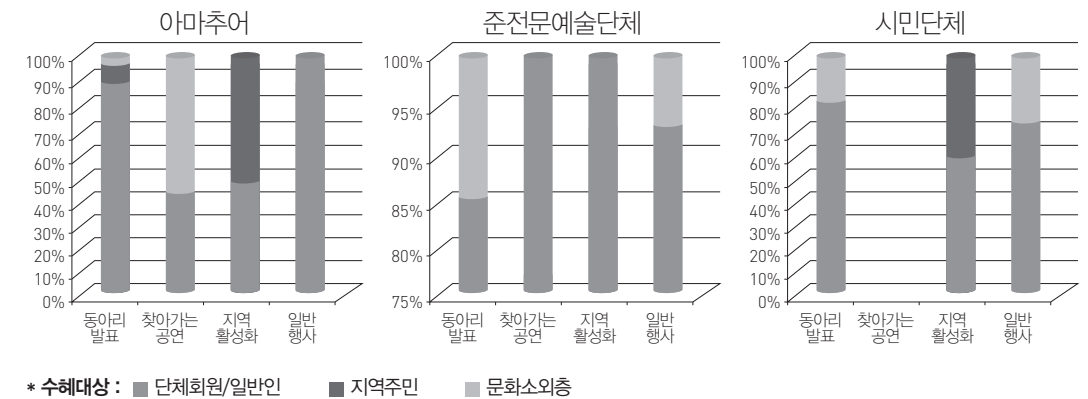
2010년 수행주체별 지원 선정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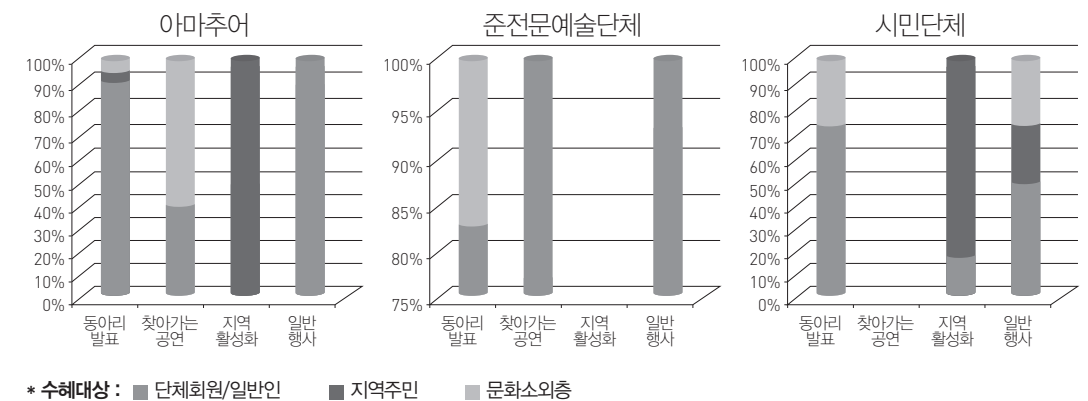
2011년 수행주체별 지원 선정 사업 현황



2012년 수행주체별 지원 선정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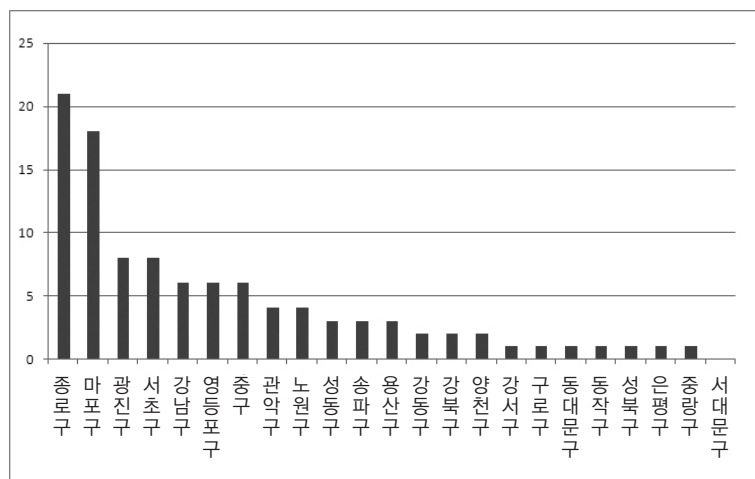
2013년 수행주체별 지원 선정 사업 현황



[그림14]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사업 _ 연도별 지원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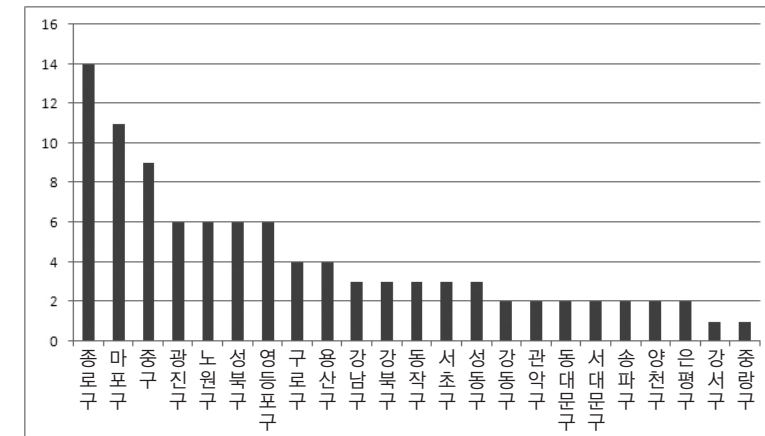
2.4. 자치구별 시민문화예술사업 현황

- 서울문화재단을 통한 시민문화사업의 다른 특징은 자치구별 상이한 시민 문화역량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다소 미약하다는 점임
 -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시민문화지원사업 대상의 소속 자치구별로 지원현황을 재분류하여 비교하였음
- 2012년 자료를 보면 종로구(20%), 마포구(17%), 광진구, 서초구(8%) 순으로 많았고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는 1건, 서대문구는 0건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로 격차가 크게 나고 있음
 -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는 종로구와 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마포구가 지원건수가 가장 많다는 결과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지원보다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관성적인 모습을 보임
 - 선정방식이 공모를 통한 문화예술적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15] 2012년 자치구별 시민문화예술사업 현황

- 2013년도 종로구(14%), 마포구(11%), 중구(9%) 순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고, 2012년에 비해 격차가 약간 줄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함
 - 2012년과 같이 관성적인 공모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그림16] 2013년 자치구별 시민문화예술사업 현황

-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문화지원사업은 관행적인 사업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시민문화역량의 차이에 주목하지도 못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사업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문화’의 영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 근본적인 원인임

3. 서울의 기초자치단체 시민문화 지원정책 현황 분석 _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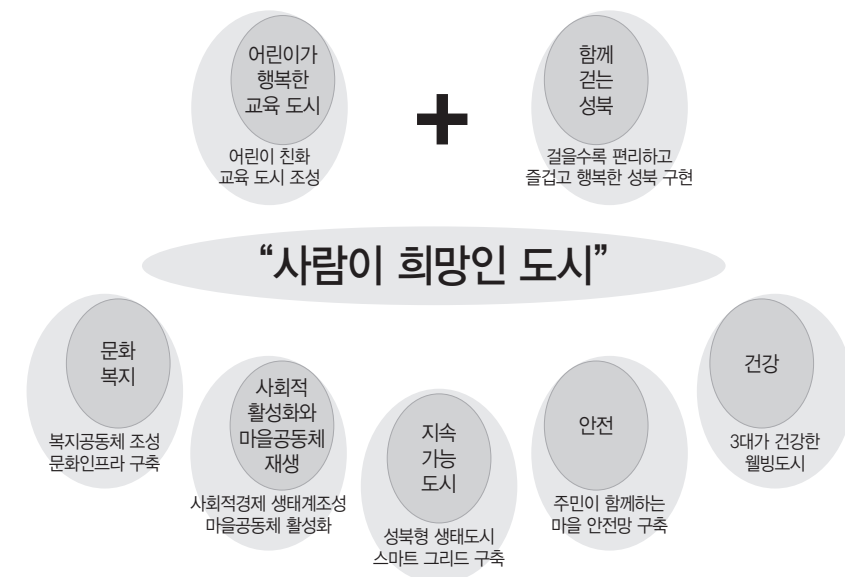
- 지금까지 중앙 정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아래에서는 성북구의 사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생활권 층위에서의 시민문화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취지는 기존의 하향식(중앙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시각으로 시민문화사업이 공급되어 온 구조의 문제점 및 한계를 고려하여, 성북구 사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및 생활권 층위에서부터 상향식, 현장 중심의 시민문화정책 협력 모델 및 예시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 성북구의 사례가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생활권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문화정책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연계지점 및 협력구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를 사례로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성북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민문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해 왔음
 - 성북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성북구 내에 마을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민문화 환경의 조성을 위한 행정 체계 구축
 - 성북문화재단의 경우 서울의 다른 기초문화재단과 달리 다양한 공간, 시설, 장르, 파트너십,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9개 구립 도서관, 아리랑씨네센터, 아리랑아트홀, 구민/여성회관,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예술허물작터 등
 -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경우 본 연구가 모색하고 있는 시민문화정책의 생활권 구조 파악, 광역-기초의 협력 모델 및 시범사업 제시 등에 적합한 구조 및 현황을 보유하고 있음

6) 본 연구에서 성북구 사례와 관련된 내용은 성북문화재단 및 성북문화재단 중장기 문화정책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음

3.1. 성북구 시민문화정책 관련 선행 연구 분석

(1) 성북구의 기본 현황

- 성북구 민선 5기 구정 비전은 “사람이 희망인 도시”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7대 과제는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함께 걷는 성북’, ‘복지문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재생’, ‘지속가능 도시’, ‘안전’,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과거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사람과 관계 중심으로 구정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서울시의 시정 방향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17] 성북구 민선 5기 비전 및 핵심과제

○ 성북구를 둘러싼 문화환경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18] 성북구 지역문화 관련 SWOT 분석

강점(S)	약점(W)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도성, 정릉, 의릉, 성북동 등 역사·생태 문화자원 풍부 ■ 풍부한 문화예술생태계 및 창조인력 존재 ■ 성북구에 존재하는 7개 대학, 전문가품, 청년생태계 ■ 혁신적인 정책의제 및 사회적 주체 형성 ■ 성북문화재단, 마을지원센터 등 중간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자원에 비해 문화예술적 이미지가 약함 ■ 성북구 내 남북간 문화격차 존재 ■ 시설관리 중심의 문화행정 ■ 혁신적 구정을 위한 예산 부족과 업무 과중 ■ 과밀화되고 난개발된 도시공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기획을 통한 도시재생 및 대안적인 도시개발 모델 수립 ■ 대학, 창조인력 등과 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식순환생태계 형성
기회(O)	위기(T)	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서울시 등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정책 활성화 ■ 주민들의 지역내 활동 욕구 증대 및 지원사업 활성화 ■ 한양도성, 정릉, 의릉 등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등 성북구정의 혁신정책으로 인한 창조인력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 증가 ■ 혁신적인 정책의제에 비해 이를 추진할 주체 부족과 구정 의존도 증가 ■ 폭넓게 존재하는 재개발 대상지와 이를 둘러싼 어려움 ■ 대학로, 삼청동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주거 고급화와 지대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적 가치에 기반한 살고싶은 역사문화, 생태친화적 성북 만들기 ■ 창조인력 유입을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 창의도시 구현
SO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문화재단 등 중간조직 활성화를 통한 창조인력커뮤니티 및 문화예술마을 구축 ■ 문화예술과 창조인력의 가치를 통해 사회적경제, 마을 만들기 등 주민자치 생활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따뜻한 문화복지 ■ 문화예술을 매개로 성북구 내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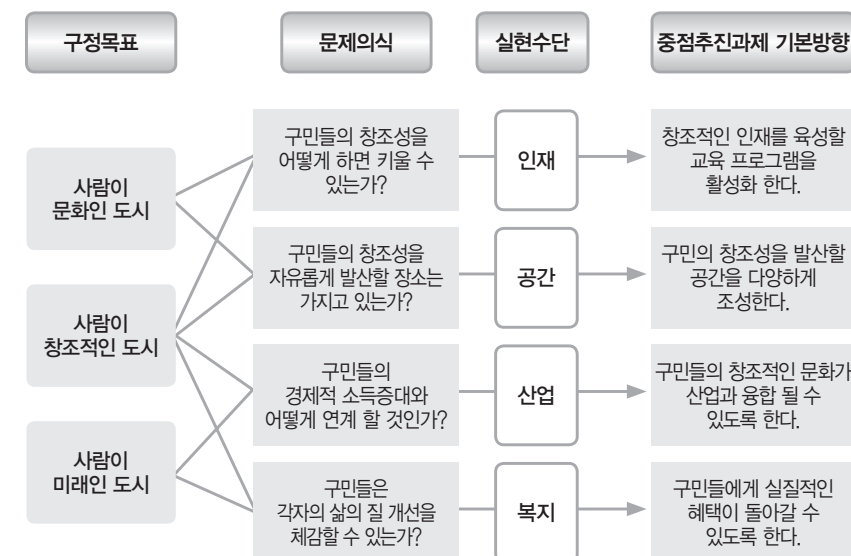
(2) 성북구 민선 5기 중점추진 과제연구 (2011년 6월, 성북구청)

○ 성북구 생활구정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

- 공간적 차원 :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의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 확보
- 복지적 차원 : 지역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고유 역할 강화
- 환경적 차원 : 전통과 자연을 일상 도시 속으로 유도
- 경제적 차원 : 역사문화적 전통성에 기반한 도심형 창조문화산업의 육성
- 교육적 차원 :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한 성북구 역할 강화
- 시민적 차원 : 참여 자치와 생활 정치를 통한 시민정부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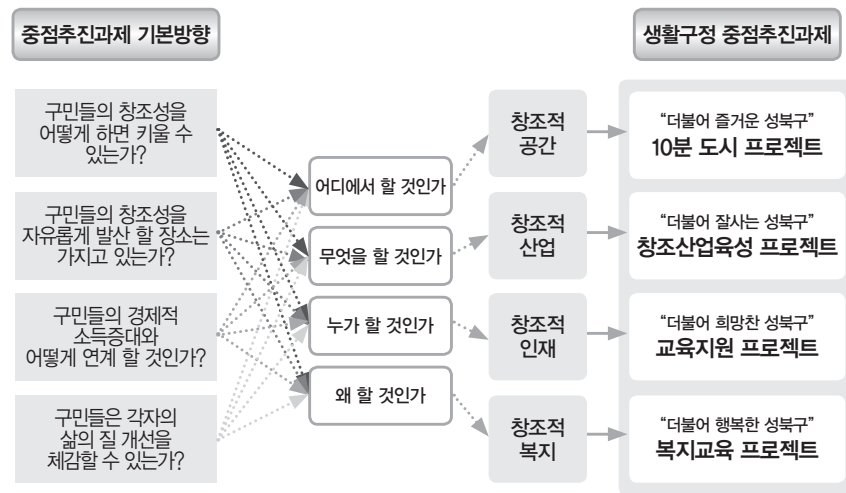
○ 성북구 생활구정 중점추진 과제의 방향

- 인재전략으로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할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공간전략으로 구민의 창조성을 발산할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 산업전략으로 구민들의 창조적인 문화가 산업과 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복지전략으로 구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림18] 생활구정 중점추진과제 기본방향

○ 생활구정 중점추진과제



[그림19] 민선 5기 생활구정 중점추진과제

(3)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3년 2월, 성북구청)

○ 성북구 마을만들기 비전

- 성북구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마을만들기 비전은 성북구의 비전과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협력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성북,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성북”으로 설정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 목표

- 목표 1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목표 2 :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협력체계 구축
- 목표 3 :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마을 재생 전략 수립
- 목표 4 : 지역자산과 주민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을 재생 추진

○ 성북구 마을만들기 유형별 추진전략

-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추진전략 :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개량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보, 주민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다세대가구주택 밀집지역 추진전략 :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

택정비 수법 적용, 주민합의에 의한 가로환경정비 추진, 주택의 유지관리 및 생활편의 지원 마을기업 육성, 마을만들기 거점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공동주택 밀집지역 추진전략 : 주민욕구에 대응한 공동체 시설 및 공용공간 개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마을장터 및 마을행사 개최, 협동조합을 통한 자생적 공동체 운영 모델 구축
- 임대주택 밀집지역 추진전략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및 복지 거점 조성, 자발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 전통시장 지역 추진전략 : 상인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인회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 수립 및 추진,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추진, 서비스의 현대화와 고객 참여형 이벤트 개최
- 성곽 등 역사문화자산 주변 지역 추진전략 : 역사문화자산주변 지역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체계 마련, 마을경관과 생활문화경관 보전이 전제된 주택개량 지원,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거점을 연계한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
- 산과 하천 주변 지역 추진전략 : 생태환경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구성,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 및 환경개선, 주민 주도의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자연자산 지킴이 활성화

○ 성북구 마을만들기 분야별 추진방안

- 물리적 환경 개선 전략 : 마을계획 수립, 주택 개량 및 신축, 기반시설 확충, 가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및 운영
- 경제적 여건 개선 전략 : 마을 자원 조사, 마을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관련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자산확보
- 사회적 여건 개선 전략 :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마을을 기반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취약계층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 전략 :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주민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실시, 소규모 마을포럼 정기 운영, 마을활동가 양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 마을공동체 활성화 아카이브 구축, 다양한 소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거점 이용 활성화 및 자율관리, 마을강좌 운영 및 마을행사 개최, 소통과 공유를 위한 마을미디어 운영 지원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전략 :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성북구 전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마을 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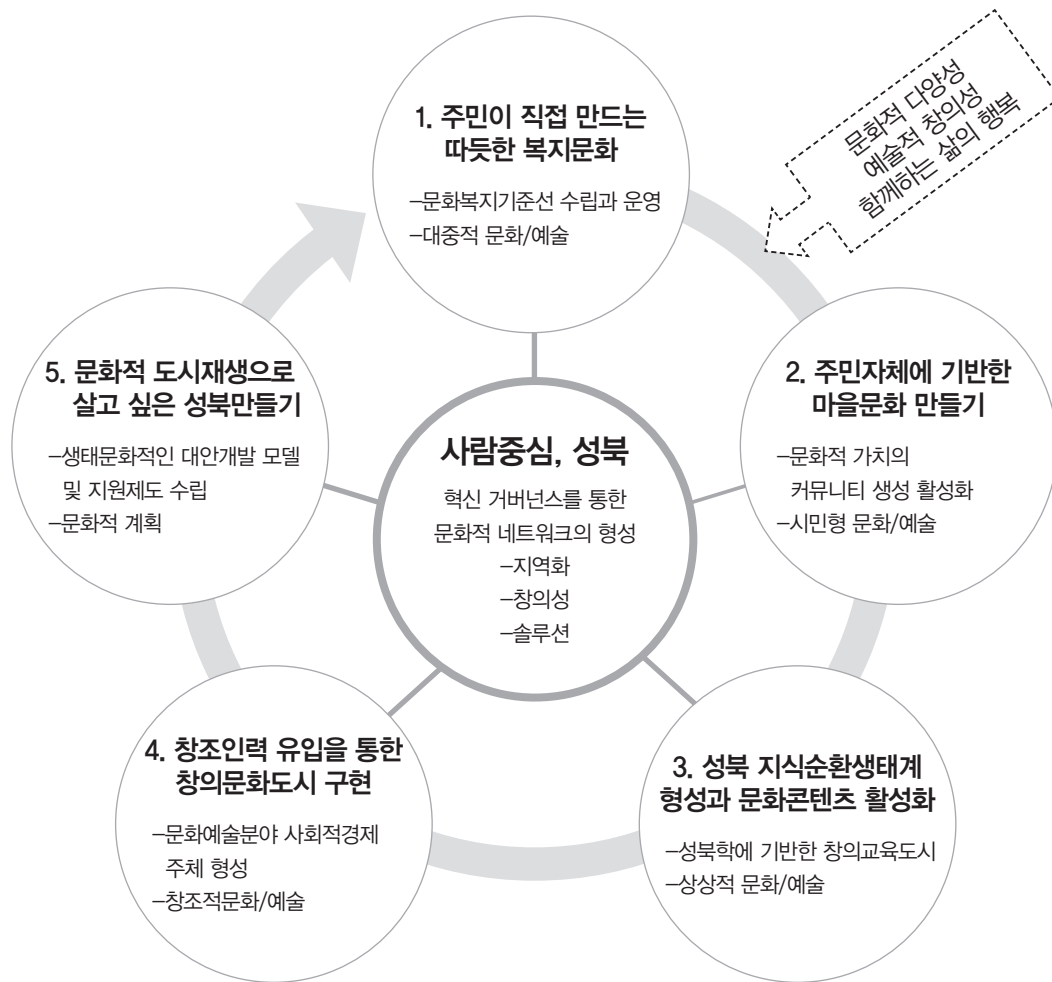
[그림20]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개요



[그림21]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 개선방안

(4) 성북구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연구 (2013년 4월, 성북구청)

○ 성북구 문화비전과 5대 문화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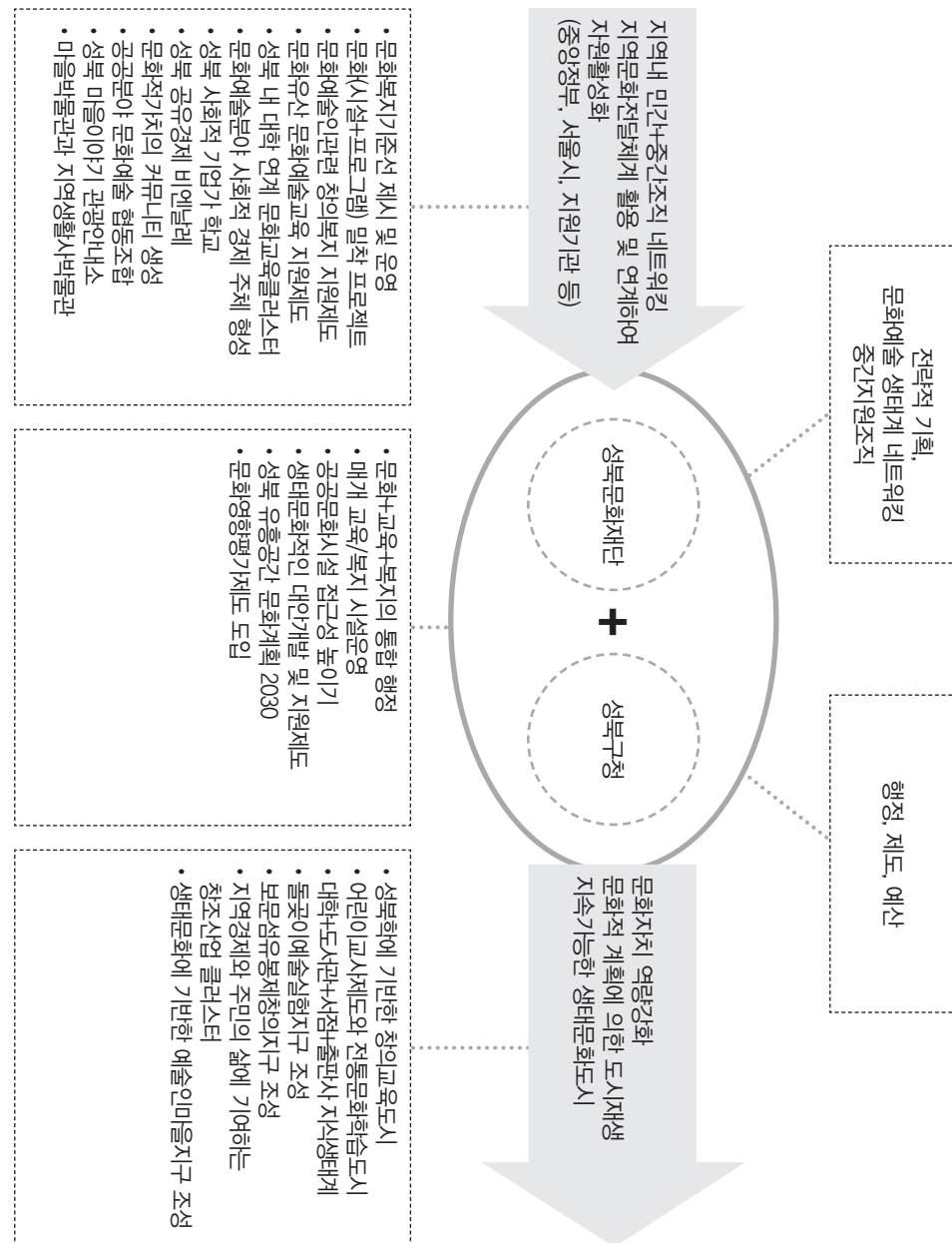


[그림22] 성북구 문화비전과 5대 문화정책 과제

○ 성북구 문화정책 핵심 원리 사업

[표 19] 성북구 문화정책 과제(종합)

	핵심 원리 사업	문화복지 기준선 제시 및 운영
주민이 직접 만드는 따뜻한 문화복지	주요 추진 사업 (예시)	문화+교육+복지 통합 행정 구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시설+프로그램) 밀착 프로젝트 예술가 매개 교육/복지 시설 운영 모델 개발 문화예술인 관련 창의복지 지원제도 도입
	핵심 원리 사업	문화적 가치를 통한 커뮤니티 생성 활성화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문화 만들기	주요 추진 사업 (예시)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높이기 프로젝트 공공분야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성북 마을이야기 관광 안내소 설치 및 확산 지역 내 마을박물관과 지역생활사박물관 조성
	핵심 원리 사업	성북학에 기반한 창의교육 도시
성북 지식 순환생태계 형성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	주요 추진 사업 (예시)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어린이교사제도와 전통문화학습도시 성북 내 대학 연계 문화교육클러스터 형성 대학+도서관+서점+출판사 지식순환생태계 구축
	핵심 원리 사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주체 형성
창조인력 유입을 통한 창의도시 구현	주요 추진 사업 (예시)	성북 사회적기업 학교 (가칭)돌곶이예술실험지구 조성 (가칭)보문섬유봉제창의지구 조성 성북 공유경제 비엔날레 개최
	핵심 원리 사업	생태문화적인 대안개발 모델 및 지원제도 수립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성북 만들기	주요 추진 사업 (예시)	성북 유희공간 문화계획 2030 수립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기여하는 창조산업 활성화 성북 커뮤니티아트빌리지 조성 사업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핵심 원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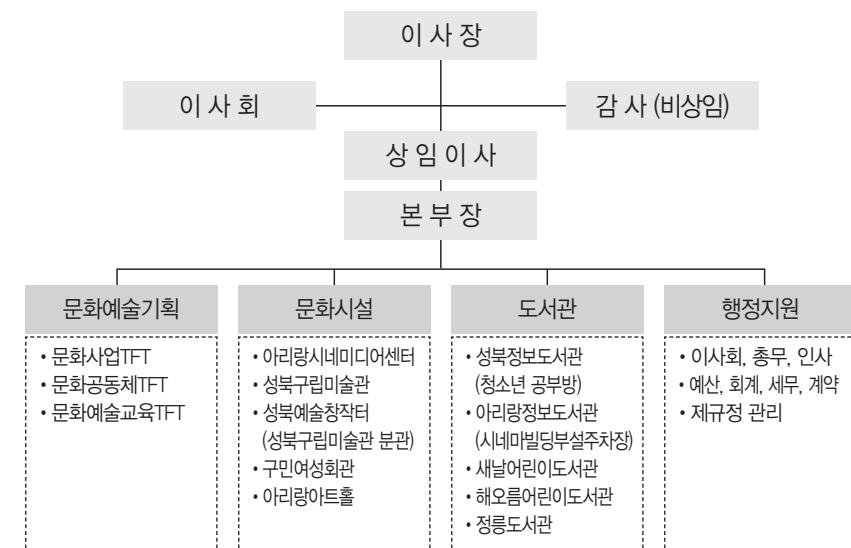
[그림23] 성북구 문화비전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운영전략

3.2. 성북문화재단 주요 현황

○ 성북문화재단 개요



[그림24] 성북문화재단의 비전, 미션 그리고 사업추진 방향 현황



[그림25] 성북문화재단 조직 개요 (2013년 5월 31일 기준)

[표 20] 성북문화재단 인력 개요 (2013년 5월 31일 기준) ※현원(정원)

구 분		정 규 직								상근	기간
		계	상임 이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합 계		82(93)	1(1)	2(3)	4(6)	13(16)	16(23)	24(26)	22(18)	7	46
임 원		1(1)	1(1)								
본 부 장		1(1)		1(1)							
문화 예술 기획	문화사업 TFT	2(0)				1(0)	1(0)				1
	문화공동체 사업TFT	1(0)					1(0)				2
	문화예술 교육TFT	2(0)				1(0)			1(0)		1
문화 시설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	8(16)			1(1)	2(1)	1(2)	4(7)	0(5)	2	9
	성북구민. 여성회관	7(10)			1(1)	0(1)	1(4)	2(1)	3(3)	3	3
	성북구민 미술관 (성북예술 창작터포함)	6(7)			1(1)	1(2)	1(2)	2(2)	1(0)		2
도서 관	성북정보 도서관	16(17)			1(1)	0(2)	3(5)	6(5)	6(4)	1	14
	아리랑 정보도서관	12(11)			0(1)	1(1)	3(2)	2(3)	6(4)	1	9
	새날어린이 도서관	4(4)				0(1)	1(1)	1(1)	2(1)		4
	해오름어린 이 도서관	3(3)				1(1)		1(1)	1(1)		1
	정릉도서관	4(4)			1(1)	0(1)	0(1)	2(1)	1(0)		
	청수골 도서관 (가칭)	1(0)				1(0)					
행정지원팀		14(12)			0(1)	5(3)	4(4)	4(4)	1(0)	0	0

[표 21] 성북문화재단 주요 시설 개요

구분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주요시설
문화 시설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	아리랑로 82 (돈암동)	지하2층, 지상4층 (대지 2,352㎡, 연면적 4,774㎡)	영화관, 독립영화관, 녹음실 및 편집실
	성북구립 미술관	성북로 134 (성북동)	지하1층, 지상3층 (대지 532㎡, 연면적 696㎡)	전시실, 세미나실
	성북예술 창작터	성북로 23 (성북동)	지상2층 (대지 102㎡, 연면적 204㎡)	전시실, 자료실
	성북구민 여성회관	성북로 4길 177(돈암동)	지하1층, 지상3층 (대지 13,690㎡, 연면적 3,862㎡)	강의실, 대강당, 독서
	아리랑 아트홀	북악산로 51 (돈암동)	지상1층 (대지 220㎡, 연면적 2,766㎡)	공연
도서관	성북정보 도서관	화랑로 18자길 (상월곡동)	지하2층, 지상5층 (대지 2,468㎡, 연면적 6,667㎡)	자료실, 열람실, 북카페, 미래연구실, 세미나실, 옥상공원
	성북청소년 공부방	장월로 89-6 (종암동)	지하1층, 지상2층 (대지 257㎡, 연면적 220㎡)	열람실
	아리랑정보 도서관	아리랑로 82 (돈암동)	지하2층, 지상2층 (대지 1,398㎡, 연면적 2,018㎡)	자료실, 열람실, 세미나실
	새날어린이 도서관	종암로 98-8 (종암동)	지하2개층 (4~5층) (연면적 576㎡)	자료실, 세미나실
	해오름어린이 도서관	성북로 4길 52 (돈암동)	지하(2층)층, (연면적 340㎡)	자료실, 옥상공원
	정릉 도서관	정릉로 242 (정릉동)	지하1개층(지하1층), 지상 1개층(2층) (연면적 283㎡)	자료실, 세미나실
	청수골 도서관(가칭)	보국문로 16가 갈 20 (정릉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3)	자료실
	재단 본부	아리랑로 12길 4(돈암동)	지하2층, 지상3층 (대지 1,645㎡, 연면적 2,679㎡)	재단본부사무실, 주차장

[표 22] 성북문화재단 2013년 주요 추진사업 현황

I. “책 읽는 성북”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1.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운동 2. 휴먼라이브러리 3. 책과 함께 인생 시작! 북스타트 4. 책드림(책Dream) 서비스 5. 정릉도서관 개관 및 운영 6. 독서회 DB 구축 및 활성화
II.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	[어린이] 7. 문·예·체 멘토링 8.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9. ‘어린이 친화도시 성북’ 미술교육 [청소년] 10.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 1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2. 청소년 연극미디어 동아리 [어르신] 13. 어르신 연극·영상·미디어 교육 [공무원] 14. 성북진경 아카데미
III.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15. 한양도성 문화유산 축제 ‘풍류순성’ 16. 간송가는길 17. 성북구립미술관 기획전시 18. 성북예술창작터 운영 19. 성북예술창작터 신진작가양성 전시 프로그램 20. 입주(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 21. 아리랑아트홀 운영 22. 독립영화 전용관(기획전) 운영
IV. 문화산업 경제 활성화	23. 찾아가는 문화나눔 ‘반반한 이동극장’ 24. 성북다문화음식축제 ‘누리마실’ 25.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지원 26. 무지개다리 사업 27.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28. 청년혁신 활동가 양성사업 29. 자치구 동네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3.3. 성북구 시민문화 사업 현황 분석

○ 성북구 시민문화 관련 사업 현황

[표 23] 성북문화재단 국시비 공모사업 현황

사업명	교부기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지원프로그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혁신활동가 양성사업	서울시, 서울청년일자리허브센터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치구 동네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운영	서울시 관광정책과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예술가 육성사업	서울시 문화예술과
꿈의 오케스트라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회관 회원기관 인턴십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고용구조 개선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
제2 독립영화 전용관 임대	영화진흥위원회
제2 독립영화 전용관 행사지원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기획전	영화진흥위원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소년 연극 미디어 동아리	영화진흥위원회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신규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지원사업 협력기관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협력사업	서울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인 문해 지원사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협력기관 특성화 지원사업	서울시교육청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민관 거버넌스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	서울시 문화정책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학습동아리 소외계층사업	서울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사업	한국도서관협회
문학작가 파견사업	한국도서관협회
평생학습 지원금	서울시교육청

[표 24] 성북문화재단 구비 사업 현황

사업명	부서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독립영화지원사업 행사	
지역영상문화네트워크(동아리) 운영	
어린이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탐방 프로그램	
미술아카데미	
창작 작품 정기연주회	여성회관
평생학습 축제	
우리동네 요리사 프로젝트	
상설 교육 프로그램	전시관(창작터)
미술 아카데미	
개관 기념 행사(3월)	
도서관 주간 행사(4월)	성북정보도서관
연말 공연 행사(12월)	
어린이날 행사	
도서관 1박2일	
독서교실(여름/겨울)	
어린이 독서회	
청소년 독서회	
일반인 독서회	
구립도서관 후원회	
책마중(어린이)	
도서관학교 특강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작가와의 만남	
독서진흥 및 독서토론	
독후감쓰기 대회	
북페스티벌	

청소년 독서회 프로그램	아리랑도서관
다문화바로알기 프로그램	
어린이 독서회	
어린이 독서교실	
도서관 서포터즈교육	
어린이날 행사	
개관2주년 기념 행사	새날어린이도서관
가정의달/어린이날 행사	
크리스마스/연말행사	
생각나무 독서맵 행사	
독서맵 연계 프로그램 강사료	
도서관 1박2일	해오름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개관 기념 행사(7월)	
도서관 주간 행사(4월)	
어린이날 행사(5월)	
독서의달 행사(9월)	
성탄절 및 연말 행사(12월)	
독서회	
도서관 1박2일(8월)	
가족 책놀이터	
독서맵 행사	아동관도서관
독서맵 연계 프로그램 강사료	
도서관 동아리 잔치	
잉글리쉬 멘토랑	
어린이 독서회	
청소년 독서회	
성인 독서회	아동관도서관
가족 독서문화여행	
도서관 1박 2일	
책속의 멘토찾기	
성북 역사문화 학교	

[표 25] 성북구 문화예술과 단위 사업 현황

성북구청 문화예술과 단위 사업명	주관기관
뜨락예술무대	
정기 문화행사	
해맞이 행사	
성북다문화음식축제	성북문화재단
전통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계승(선잡제향)	성북문화원
예술단체운영 (합창단, 장애청소년합창단, 실버합창단)	
성북진경축제	성북문화재단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성북 전국사진공모전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국제청소년영화제 추진위원회
역사문화여행	
서원 아카데미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 운동	성북문화재단
한양도성 문화유산 축제	
간송가는길	
독서토론 아카데미	

[표 26]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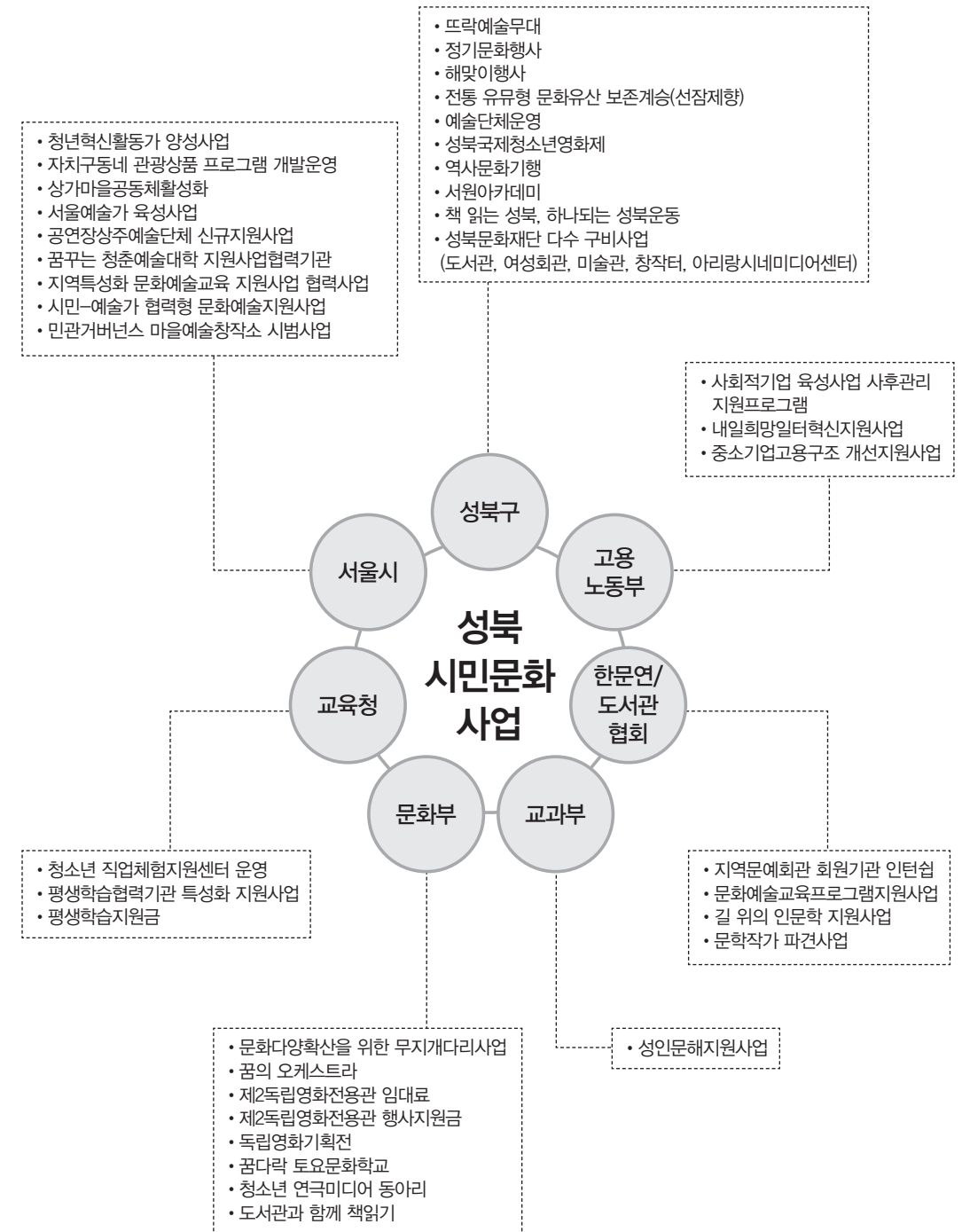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주체
성북동에 놀러와	성아들
열린커뮤니티 키즈&맘 북카페 조성사업	꿈의숲푸르지오
도시락, 밑반찬 조리실조성	비둘기봉사회
봉제야 눈 좀 뜨자	봉제야달려라
아름다운 북정	축제, 마을을 만들다
엄마! 책 읽어줘	북.맘 독서토론회
정릉주민들의 하모니 ‘어울림합창단’	정릉4동 어울림 합창단
다함께 꿈을 키우는 공동체 ‘아름드리 마을만들기’	길음뉴타운 3단지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
텃밭조성 및 꽃 가꾸기	삼선동 새마을 부녀회
전통 혼으로 물들다 ‘장위부마축제’	장위부마축제 추진위원회
래미안2 커뮤니티 케어 ‘쉐어 더 비전 2013’	래미안 길음2차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정릉시장에 살어리랏다’	정릉시장 상인회
장애인 인원교육 ‘숨은사람찾기’	알록달록 발걸음
서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공동체 만들기	서로이웃
헌책방과 사랑 나눔의 행복공유 사업	새마을문고 성북구지부
홀몸 어르신 생명지킴이 돌보미 활동	성북구 새마을 부녀회
행복한 정릉 동네 문화교실	행복한 정릉 마을만들기 추진 모임
어르신 및 마을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사업	성북구 문화예술 협동조합
정릉다운 정릉이야기 2	우리동네 능말
다문화 부모 및 어린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사업	성북 어린이 돌봄 협동조합
마을 벽화그리기	동일 하이빌 뉴시티 부녀회
벽화하나로	희망청년회
우리동네 도서관에 텃밭이 생겼어요	주민모임 (늘푸른회)
성북지킴이와 함께 짓는 월곡동 환경이야기	성북지킴이
문화와 낭만의 거리 ‘하나로’	몽당

임대아파트 거주 홀몸어르신 대상 사랑방 모임	길음1동 좋은소리 모임
성북구 국제교류 역사, 문화자원 청소년 홍보대사	성북 청소년 신나라
함께 명상하는 힐링 공동체 만들기	사회통합 치유센터 마음복지관
안녕! 친구야 함께해	책동무
함께 놀아보자-전래놀이 체험	신나게 놀자
나눔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공간 창출	길음1동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좋아서 사는 마을 만들기	성북동천

○ 성북문화재단 교부기관에 따른 사업분류

중앙정부 부처	서울시	독립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노사발전재단	서울시 - 청년일자리허브 - 관광정책과 - 소상공인지원과 - 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영화진흥위원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마포평생학습관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그림26] 성북문화재단 주요 협력주체 현황



[그림27] 성북문화재단 주요 협력주체별 사업 현황

○ 성북문화재단 주제-영역구분에 따른 사업분류

[표 27] 성북문화재단 국시비 공모사업 현황 주제-영역별 분류

주제 영역	주인	시민	국민
사회	- 상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 평생학습협력기관 특성화지원사업 - 민관거버넌스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 - 평생학습 지원금	
문화	- 청소년 연극, 미디어, 동아리 - 학습동아리, 소외계층 사업	- 서울예술가 육성사업 - 꿈의 오케스트라 - 독립영화기획전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꿈꾸는청춘예술대학 지원사업 협력기관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역특성화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성인문해지원사업 - 시민-예술가협력형 문화예술지원사업 - 길 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	-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 제2독립영화전용관 임대료 - 제2독립영화전용관 행사 지원금 -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신규지원사업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문학작가 파견사업
경제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사후관리지원 프로그램 - 자치구 동네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운영	- 중소기업 고용 구조 개선 지원사업	- 청년혁신활동가 양성사업 - 청소년직업체험 지원센터운영 - 지역문화회관 회원기관인턴쉽 -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사업

[표 28] 성북문화재단 구비 사업현황 주제-영역별 분류

영역 주제	주민	시민	국민
사회	- 평생학습축제		- 책마중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독서진흥 및 독서 토론 - 4대 정책과제
문화	- 지역 영상문화네트 워크(동아리) 운영 - 우리동네요리사 프로젝트 -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독서회 - 북페스티벌 - 전시관 개관기념 행사 - 도서관 주간행사 - 연말 공연행사 - 어린이날 행사 - 개관2주년 기념행사 - 가정의달/어린이날 행사 -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 개관 기념행사 - 도서관 주간행사 - 독서의날 행사 - 독서회 - 도서관동아리잔치	-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 어린이미술관 - 탐방프로그램 - 미술아카데미 - 창작작품 정기연주회 - 상설교육프로그램 - 미술아카데미 - 도서관 1박2일 - 독서교실 - 도서관학교 특강 - 작가와의 만남 - 독후감쓰기 대회 - 청소년독서회 프로그램 - 어린이 독서교실 - 도서관 책놀이터 - 잉글리쉬 멘토링 - 가족독서문화여행 - 책속의 멘토찾기 - 성북역사문화학교	- 독립영화지원사업 행사 - 다문화바로알기 프로그램 - 도서관서포터즈 교육 - 생각나무 도서맵 행사 - 도서맵 행사
경제		- 구립도서관후원회	- 도서맵 연계 프로그램 강사로

[표 29] 성북구 문화예술과 단위사업 현황 주제-영역별 분류

영역 주제	주민	시민	국민
사회			- 책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운동
문화	- 트락예술무대 - 정기문화행사 - 해맞이행사 - 성북진경축제 - 지역예술단체문화 예술공연 -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 역사문화여행 - 간송가는길	- 성북전국사진 공모전 - 서원아카데미 - 독서토론아카데미	- 예술단체운영 (합창단, 장애 청소년합창단, 실버합창단) - 한양도성문화유산 축제 - 성북다문화음식 축제 - 전통유무형문화 유산보존계승 (선잠제향)
경제			

[표 30]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현황 주제-영역별 분류

영역 주제	주민	시민	국민
사회	- 도시락,밀반찬조리실조성 - 아름다운북정 - 다함께꿈을키우는공동체'아름드리마을 만들기' - 래미안2커뮤니티케어'쉐어더비전2013' - 서로이웃과함께하는지역사회나눔공동체 만들기 - 장애인인권교육'숨은그림찾기' - 홀몸어르신생명지킴이돌보미활동 - 성북지킴이와함께짓는월곡동환경이야기 - 임대아파트거주홀몸어르신대상사랑방모임 - 함께명상하는힐링공동체만들기 - 좋아서사는마을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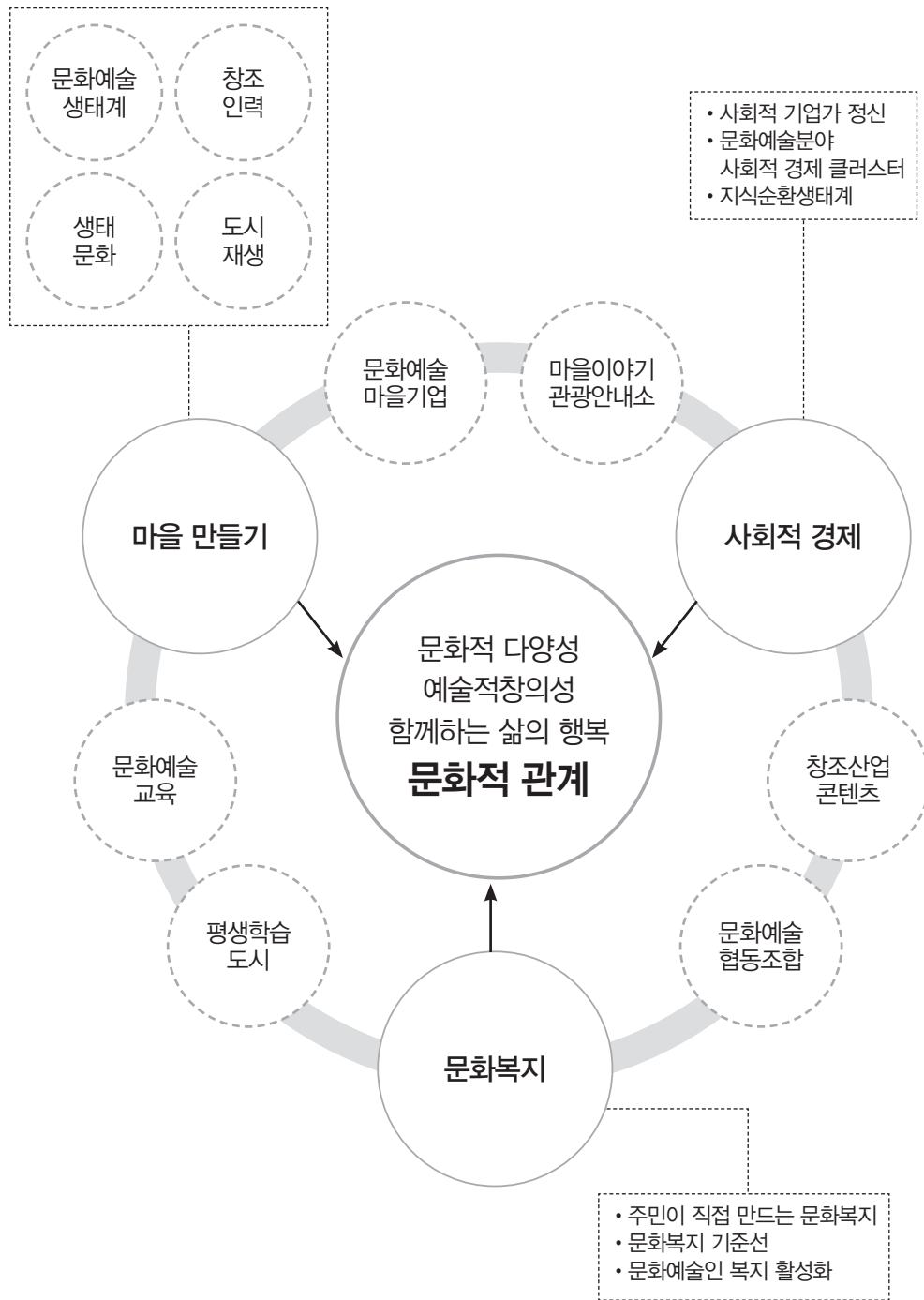
문화	- 성북동에놀러와 - 열린커뮤니티키즈&맘북카페조성사업 - 정릉주민들의하모니 '어울림한마당' - 텃밭조성및꽃가꾸기 - 전통혼으로물들다 '장위부마축제' - 행복한정릉동네문화교실 - 어르신및마을주민을위한문화공연사업 - 정릉다운정릉이야기2 - 마을벽화그리기 - 벽화하나로 - 우리동네도서관에텃밭이생겼어요 - 문화와낭만의거리 '하나로' - 성북구국제교류역사,문화자원청소년홍보대사 - 안녕,친구야함께해 - 함께놀아보자- 전래놀이체험 - 나눔거리조성과청소년문화공간창출		
경제	- 봉제야는좀뜨나 - 헌책방과사랑나눔의행복공유사업 - 다문화부모및어린이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		

[표 31] 성북구 시민문화 관련 전체 사업 현황 주제-영역별 분류

영역 주제	주민	시민	국민
사회	-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 평생학습축제 - 도시락,밀반찬조리실조성 - 아름다운북정 - 다함께꿈을키우는공동체 '아름드리마을만들기' - 래미안2커뮤니티케어 '쉐어더비전2013' - 서로이웃과함께하는지역 사회나눔공동체만들기 - 장애인인권교육 '숨은그림찾기' - 홀몸어르신생명지킴이 돌보미활동	- 평생학습협력기관 특성화지원사업 - 민관거버넌스마을 예술창작소시범 사업 - 평생학습지원금	- 책마중 - 도서관과함께 책읽기 - 독서진흥및독서 토론 - 책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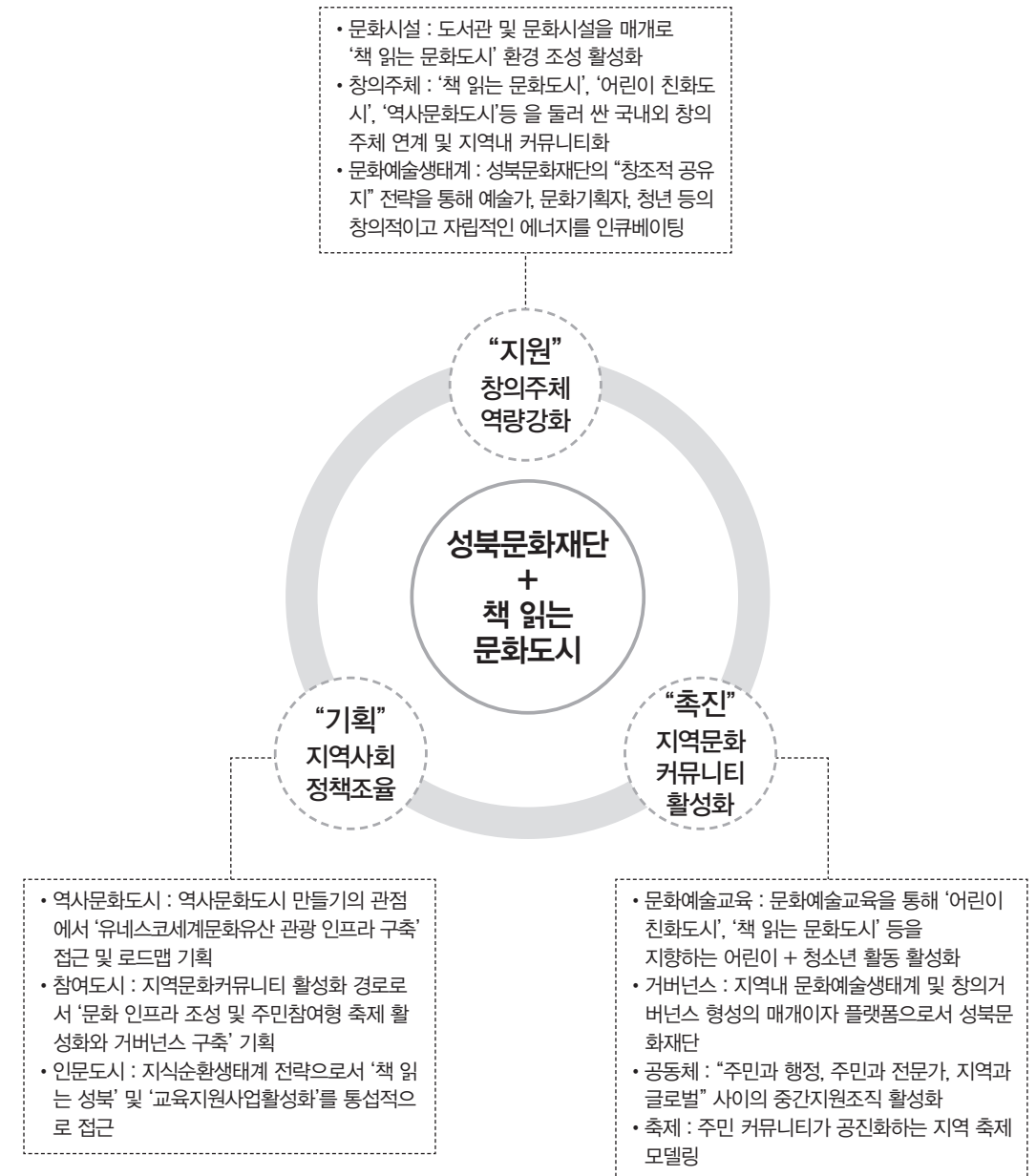
영역 주제	주민	시민	국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지킴이와함께짓는 월곡동환경이야기 - 임대아파트거주홀몸 어르신대상사랑방모임 - 함께명상하는힐링공동체 만들기 - 좋아서사는마을만들기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연극미디어동아리 - 학습동아리소외계층사업 - 지역영상문화네트워크(동아리)운영 - 우리동네요리사프로젝트 - 어린이,청소년,일반인 독서회 - 북페스티벌 - 전시관개관기념행사 - 도서관주간행사 - 연말공연행사 - 어린이날행사 - 개관2주년기념행사 - 가정의달/어린이날행사 - 크리스마스연말행사 - 개관기념행사 - 도서관주간행사 - 독서의날행사 - 독서회 - 도서관동아리잔치 - 트락예술무대 - 정기문화행사 - 해맞이행사 - 성북진경축제 - 지역예술단체문화예술 공연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 역사문화여행 - 간송가는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예술가육성사업 - 꿈의오케스트라 - 독립영화기획전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꿈꾸는청춘예술대학지원사업협력기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 - 지역특성화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성인문해지원사업 - 시민- 예술가협력형 문화예술지원사업 - 길 위의 인문학 지원사업 -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 어린이미술관 - 탐방프로그램 - 미술아카데미 - 창작작품정기 연주회 - 상설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무지개다리사업 - 제2독립영화전용관 임대료 - 제2독립영화전용관 행사지원금 - 공연장상주예술 단체신규지원사업 - 도서관과함께책읽기 - 문학작가파견사업 - 독립영화지원사업 행사 - 다문화바로알기 프로그램 - 도서관서포터즈 교육 - 생각나무도서맵 행사 - 도서맵행사 - 예술단체운영(합창단,장애청소년 합창단,실버합창단) - 한양도성문화유산 축제 - 성북다문화음식 축제 - 전통유무형문화유산보존계승(선잠제향)

영역 주제	주민	시민	국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동에놀러와 - 열린커뮤니티키즈&맘북 카페조성사업 - 정릉주민들의하모니'어울림한마당' - 텃밭조성및꽃가꾸기 - 전통혼으로물들다 '장위부마축제' - 행복한정릉동네문화교실 - 어르신및마을주민을위한 문화공연사업 - 정릉다운정릉이야기2 - 마을벽화그리기 - 벽화하나로 - 우리동네도서관에텃밭이 생겼어요 - 문화와낭만의거리 '하나로' - 성북구국제교류역사,문화 자원청소년홍보대사 - 안녕,친구아함께해 - 함께놀아보자- 전래놀이 체험 - 나눔거리조성과청소년 문화공간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아카데미 - 도서관1박2일 - 독서교실 - 도서관학교특강 - 작가와의만남 - 독후감쓰기대회 - 청소년독서회 프로그램 - 어린이독서교실 - 도서관책놀이터 - 잉글리쉬멘토랑 - 가족독서문화여행 - 책속의멘토찾기 - 성북역사문화학교 - 성북전국사진 공모전 - 서원아카데미 - 독서토론아카데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 사후관리지원프로그램 - 자치구동네관광상품 프로그램개발운영 - 봉제야는쪼뜨나 - 한책방과사랑나눔의행복 공유사업 - 다문화부모및어린이사회 적응프로그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고용구조 개선지원사업 - 구립도서관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혁신활동가 양성사업 - 청소년직업체험 지원센터운영 - 지역문화예술회원 기관인턴십 -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사업 - 도서맵연계 프로그램강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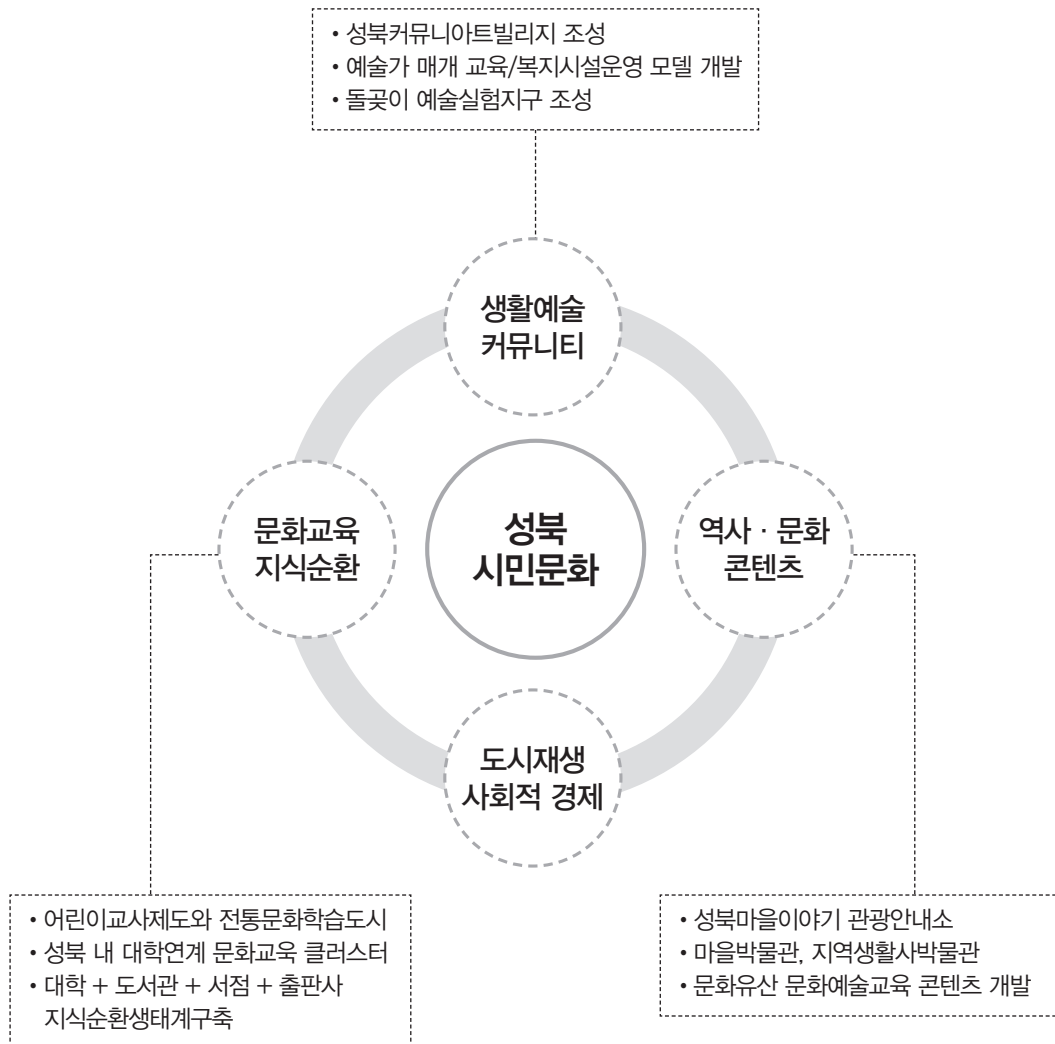


[그림28]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성북구 시민문화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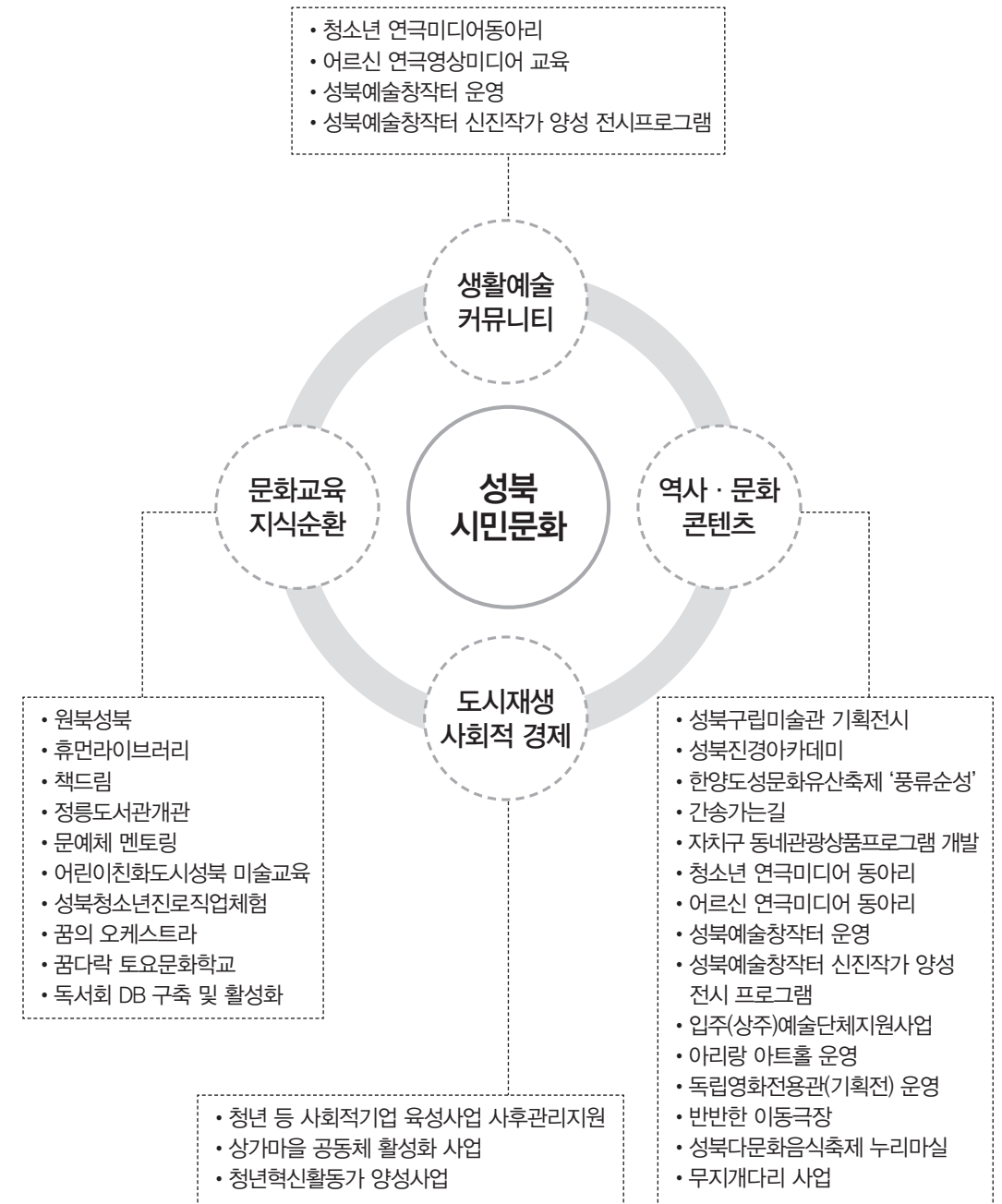
3.4. 성북문화재단 시민문화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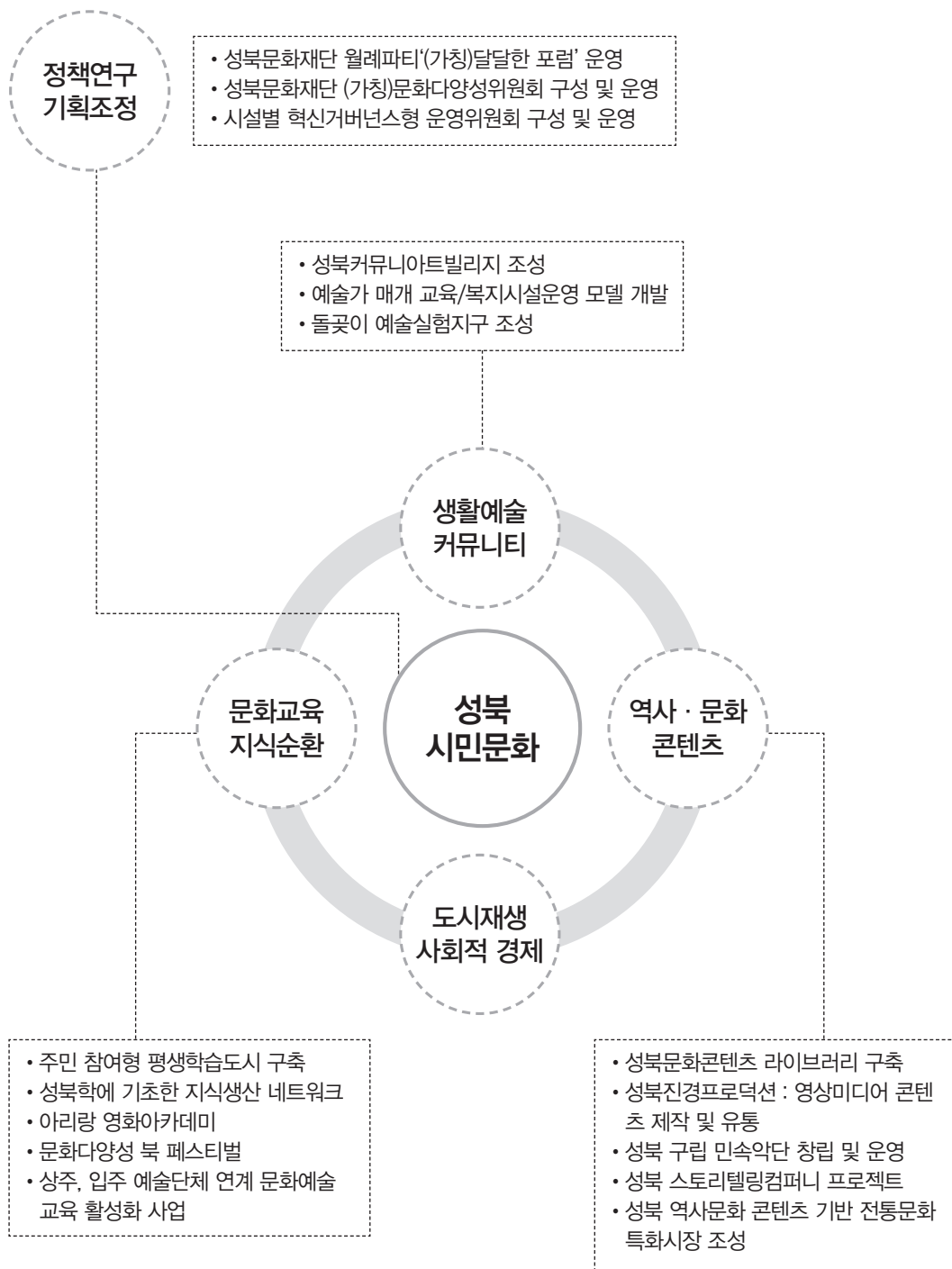
[그림29] 성북문화재단 중장기 과제 및 역할



[그림30] 성북구 시민문화 구성 요소 + 중장기 문화정책



[그림31] 성북구 시민문화 구성요소 + 성북문화재단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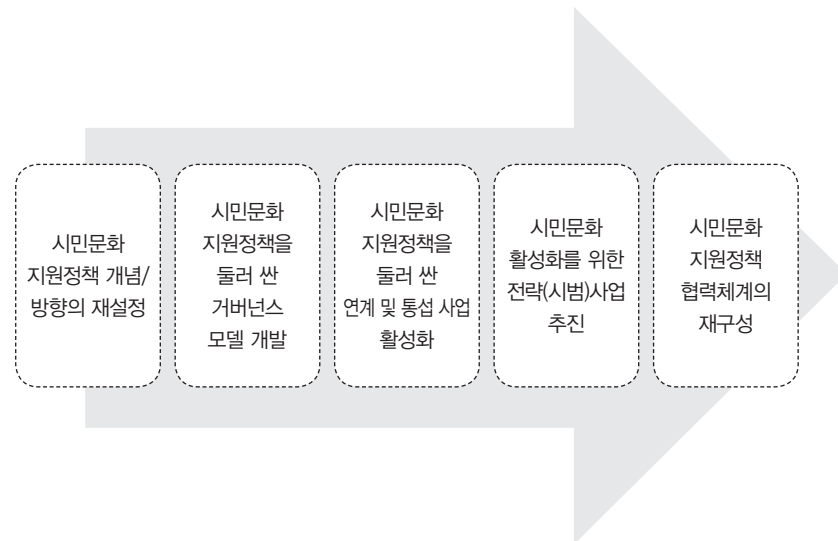
[그림32] 성북구 시민문화 구성 요소 + 성북문화재단 사업 전략

IV. 결론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지원정책의 재개념화
2.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IV 결론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본 연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시민문화 지원정책 개념 및 방향의 재설정
 - 시민문화 지원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시민문화 지원정책을 둘러싼 연계 및 통섭사업 활성화
 -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시범) 사업의 추진
 - 시민문화 지원정책 협력체계의 재구성



[그림33]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지원정책의 재개념화

-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기존의 주거생활권 중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민의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으로 확장되고, 정책대상의 의미에서 개개인의 개별화된 대상에서 개인들 간의 집단이나 혹은 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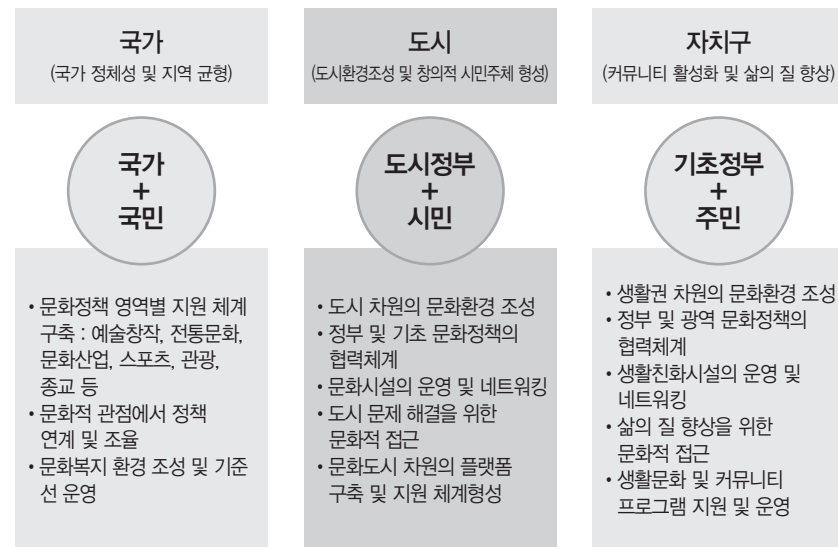
적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음

- 기존에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사업들이 사실상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정책 대상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원화시키거나 혹은 지속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타 주변 사업과의 연계성이 마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시민문화의 정책 목표를 ‘시민의 문화 참여를 통해서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두터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의 정책 수준이나 범위에 맞도록 기존 정책들을 변형,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물론 현재 시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수는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최소한 중장기적인 사업비전으로서 시민문화의 범위설정과 정책조준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적 분석을 하는 것에 단기적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임
 - 아래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해온 시민문화정책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시민문화 지원정책의 혁신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함

- 그동안 추진되었던 문화정책들을 보면, 각각 정책의 명칭이나 내용이 정책 수행 기관의 속성에 따라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를테면 정부가 하는 문화정책은 국가라는 스케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국민이 되는 셈이고 정책내용도 그러하고 도시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은 시경계 내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대상을 특정하고, 마찬가지로 자치구 수준의 기초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국민과 도시정부의 시민과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주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공간적 경계는 구경계를 넘어서지 않음

- 문화정책이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의 스케일에 따라서 경계가 특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한계일 수 있으나, 외려 대상으로서 시민이나 주민이 이런 경계 구분에 한정되어 특정된다면 애초 시민과 주민이 가지는 내용적 차이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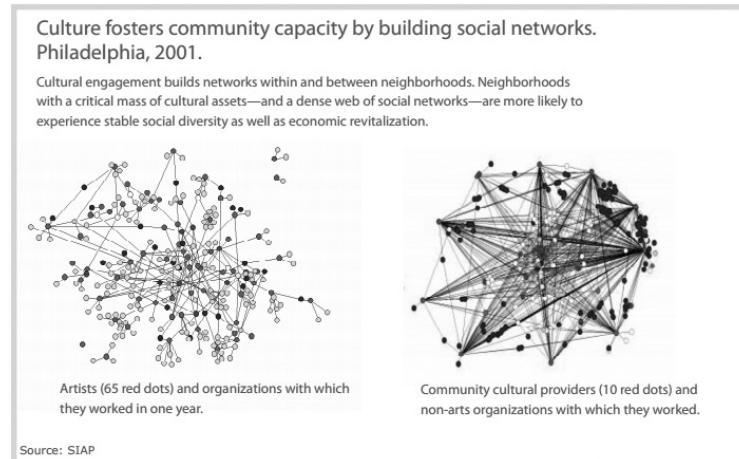
[그림34] 사회적 층위에 따른 문화정책의 내용 및 대상

- 특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의 다층적인 정체성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생활권이 거주생활권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실제 시민들의 생활권은 그보다 복합적인 권역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 정책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이 개별적인 정책조준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도 직접적으로 와닿지 못하고 비껴서게 되는 결과를 양산하거나, 혹은 시 사업에는 이렇게 구 사업에는 저렇게와 같이 분리된 방식으로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3개 동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마을미디어 사업단 간의 프로그램 공유나 콘텐츠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의 문화정책 특히 시민문화정책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적 공간인 생활권을 있는 그대로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의 경우에는 ‘근린성’이 핵심적인 특징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형성된 공동체를 기반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나 직장을 오가는 시민의 경우에는 공동체 기반형 시민문화는 유연할 수밖에 없음



[그림35] 시민생활권 개념화

- 현재와 같이 SNS를 기반으로, 광역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생활권 역시 주거 생활권의 범위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움
- 실제로 최근 해외의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의 문화사업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민들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끌어내는 역할을 주목하고 있음
- 아래의 필라델피아 사례를 보면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문화사업이 커뮤니티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 “몇 명이 참여하는가?”, “결과물의 질이 어떠한가?”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 문화가 형성한 관계망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



[그림36] 커뮤니티 관계망 중심의 시민문화활동 원리 _ 필라델피아 사례

- 커뮤니티 관계망 중심의 접근법은 기존의 지역 문화정책이 지니는 시설이나 예술가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역량강화와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시민역량 강화’라는 시민문화의 정립 방향과 조응하는 부분이 있음
- 기존의 지역 문화정책은 대상에 있어 예술가인가, 아마추어인가로 특정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정량적 숫자로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고, 예술가를 매개로 하는 지역 문화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주민 수로 평가되었음
 - 이 경우에 해당 시민문화정책의 성과가 수단 자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 한정되는 한계를 보였음
 - 예를 들어 왜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왜 예술가들의 공공문화사업이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에 뚜렷한 답이 없음
- 관계망 중심의 시민문화 정책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역량을 재활성화하고 지역 내 주민들을 시민적 주체로 발굴하는 적극적인 사업 목표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음
- 물론 이와 같은 관계망 복원 중심의 문화정책이 시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인프라 활성화 및 시민개방 정책과 함께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⁷⁾

- 한 예로 필라델피아 시에서 제공하는 ‘First Friday’ 프로그램은 매달 첫째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문화예술 거리에 산재한 40개 이상의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며, 방문객에게 와인과 치즈를 제공해 서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함. 필라델피아 시 문화예술 거리는 90년대 중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도심 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거리 주변의 빈 건물들이 상업과 주거공간으로 재점유하는 사업도 시행됨
- 현재 서울시 특히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정책은 대상별, 사업유형별 구분에 따른 단면적 정책에 가까움. 즉, 면이 되지 못하고 점으로 형성된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예시적으로 기존의 문화정책을 생활인인 시민의 복합적인 생활 자체에 주목하여 재편성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예시가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주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형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창작지원 사업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매개 사업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이를테면 대관료 지원사업이나 대학 등과 공간사용 협정을 맺는 방식 등
- 직장생활이나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이나 혹은 강남, 종로, 구로와 같이 직장 밀집 지역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관계 기반형 문화정책을 고민할 수 있음
 - 이 경우 직접지원보다는 개별화된 문화자원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문화동호회 포털’과 같이 정보를 집적하고 분류하고 소통시키는 매개 역할이 더욱 중요함
-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사업의 경우에는 시민참여 혹은 시민사회 강화로 볼 수 있는 만큼 앞서 소개한 필라델피아 사례와 같이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지역에 문화사업을 통해서 관계망을 회복시켜주거나 혹은 시민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관련 교육 자료를 생산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의 실태가 축적되고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사업이 필요함

7) 「문화예술 거리 이벤트를 통한 도심 재활성화」, 『세계도시동향』, 제125호, 서울연구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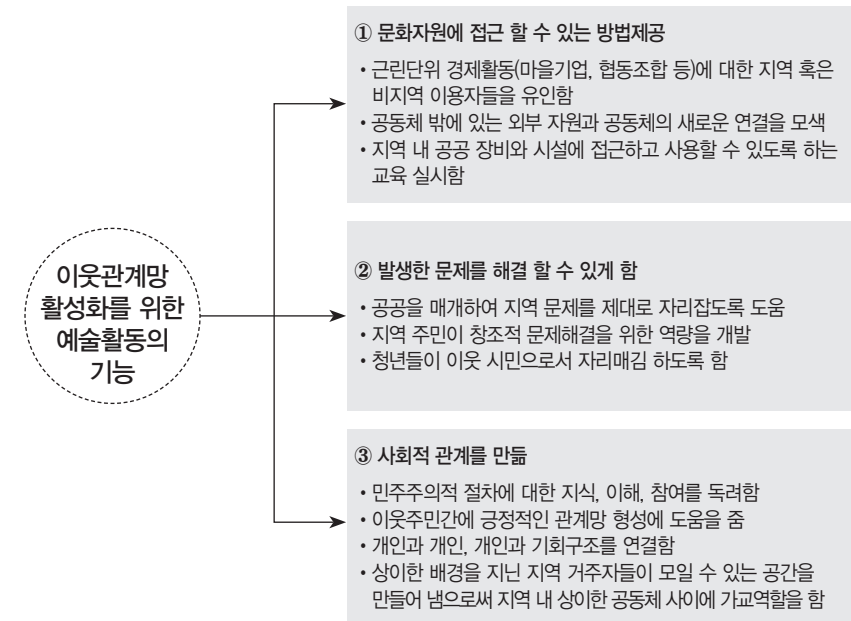
[표 32] 시민문화 지원사업의 유형화

기존 정책	유형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예술교육 • 토요문화학교 	커뮤니티 기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창작단체 지원 • 예술활동 공간연계 사업 (학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연계 프로그램 지원 • 예술로 희망드림 • 시민예술활동 지원 •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 	사회관계 기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매개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하철 예술기차 • 서울시 문화동호회 포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이용권 • 예술학교 • 창작공간 운영 	시민역량 강화 기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교육용 영상제작 지원 • 예술매개형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시민문화자원 조사

○ 따라서 시민문화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생활권에 대하여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책 목표와 개념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제시하는 시민문화의 개념정립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는 미국에서 진행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예술활동의 관계를 ‘이웃관계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해놓은 것임⁸⁾
- ①과 ②의 경우는 통상적인 지역 문화정책에 공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시민문화의 개념은 바로 ③의 ‘지역 이웃관계망 형성’에 정책적 목표를 잡고 있는 부분임

8) Mark J. Stern and Susan C. Seifert, 「Culture and Urban Revitalization: A Harvest Document」, January 2007, University of Pennsylvania. 46쪽. 본문의 그림은 원문의 그림에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항목들을 취사선택한 사항임. 원문의 그림에는 미국의 특징답게 인종적 통합이나 타 민족의 문화 공유 등과 같은 항목에 비중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 본 연구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논의의 집중 차원에서 배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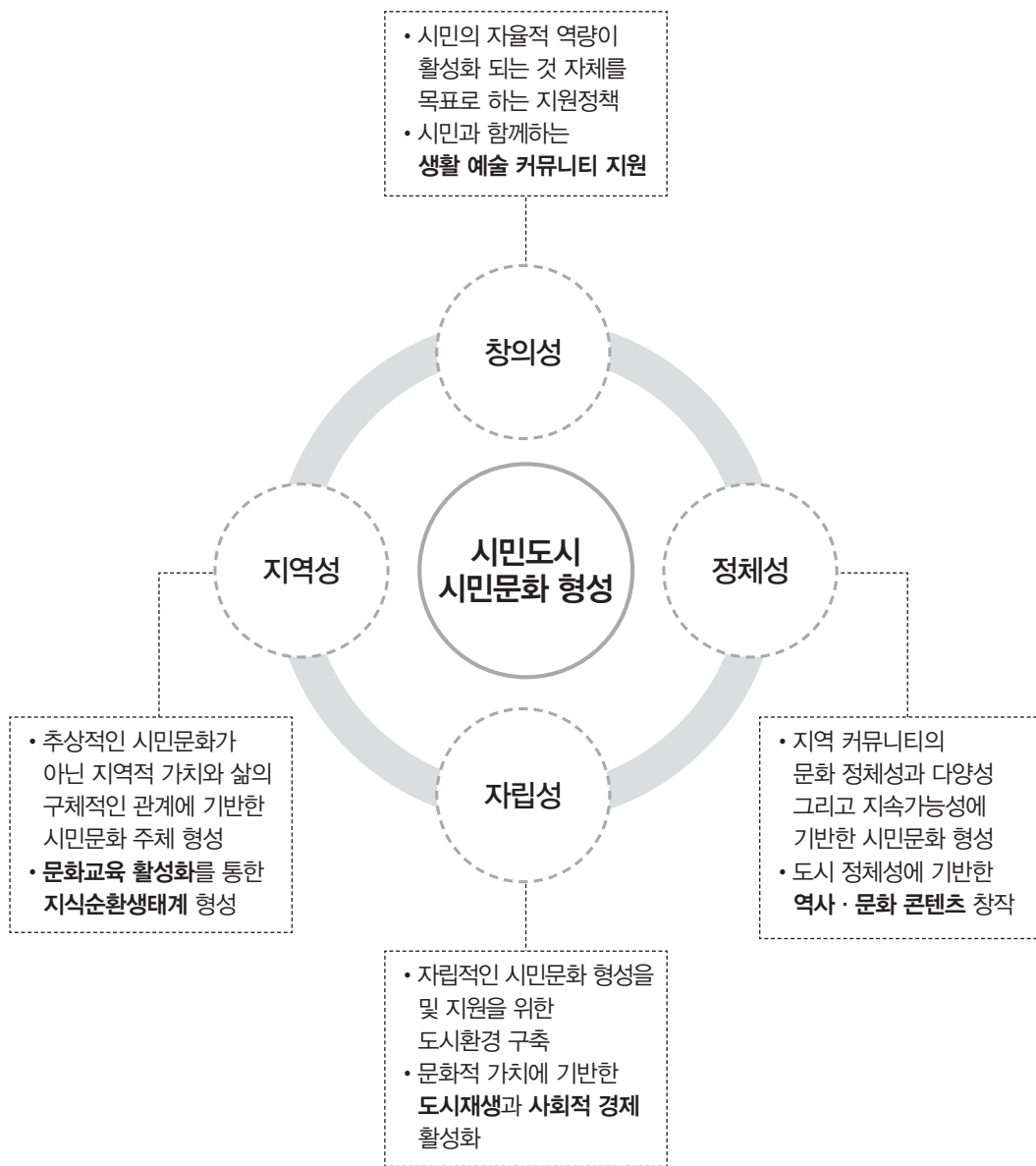


[그림37] 이웃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예술 활동의 기능

-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는 속성이 시민문화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일차적으로는 시민문화의 제도적 배경을 이루는 시민문화의 지속과 성숙에 선결적인 조건이 되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참여가 중요함
 - 다음으로는 단순히 이웃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협동이나 연대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서 시민문화 활동의 중요성이 놓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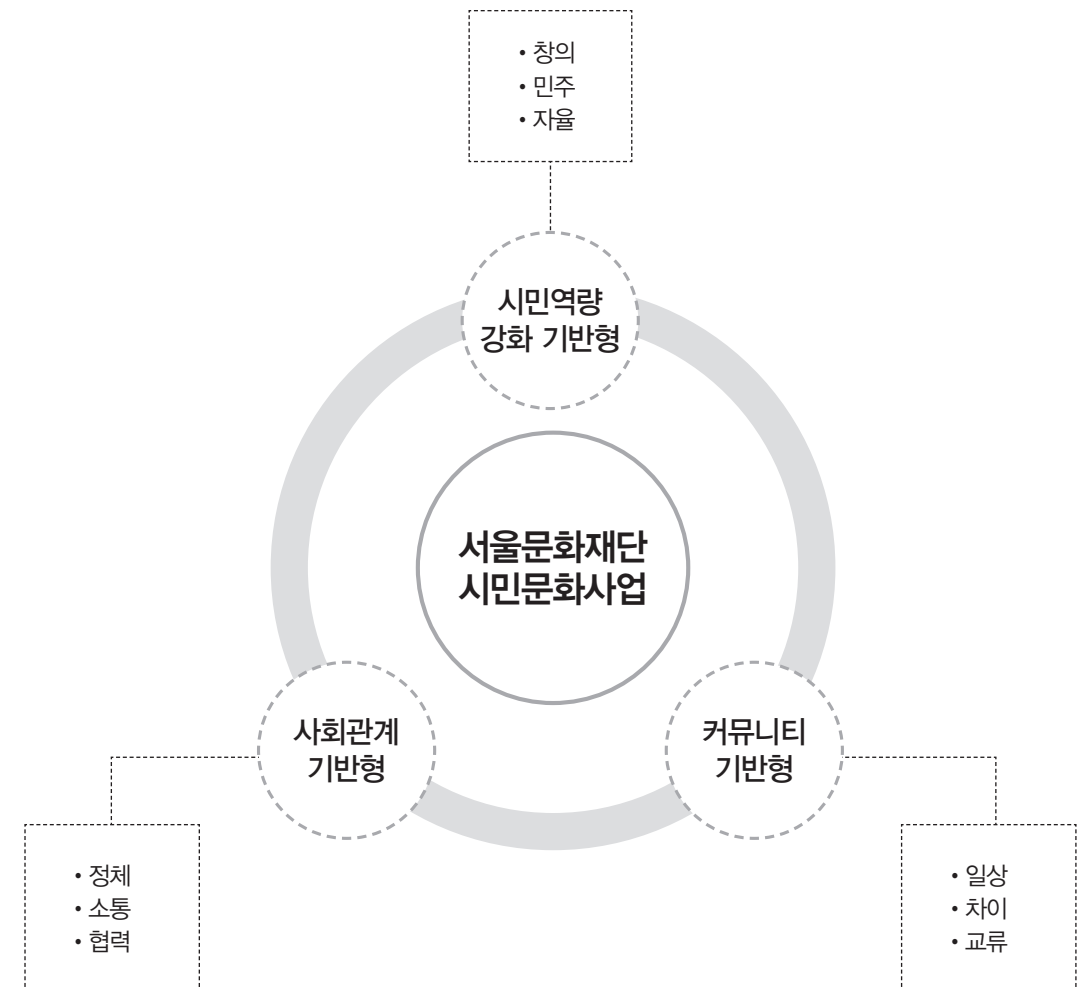
2.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 앞서 검토했던 시민문화의 개념 설정, 시민문화정책의 포지셔닝 그리고 생활권 시민문화정책 환경에 대한 귀납법적 접근을 통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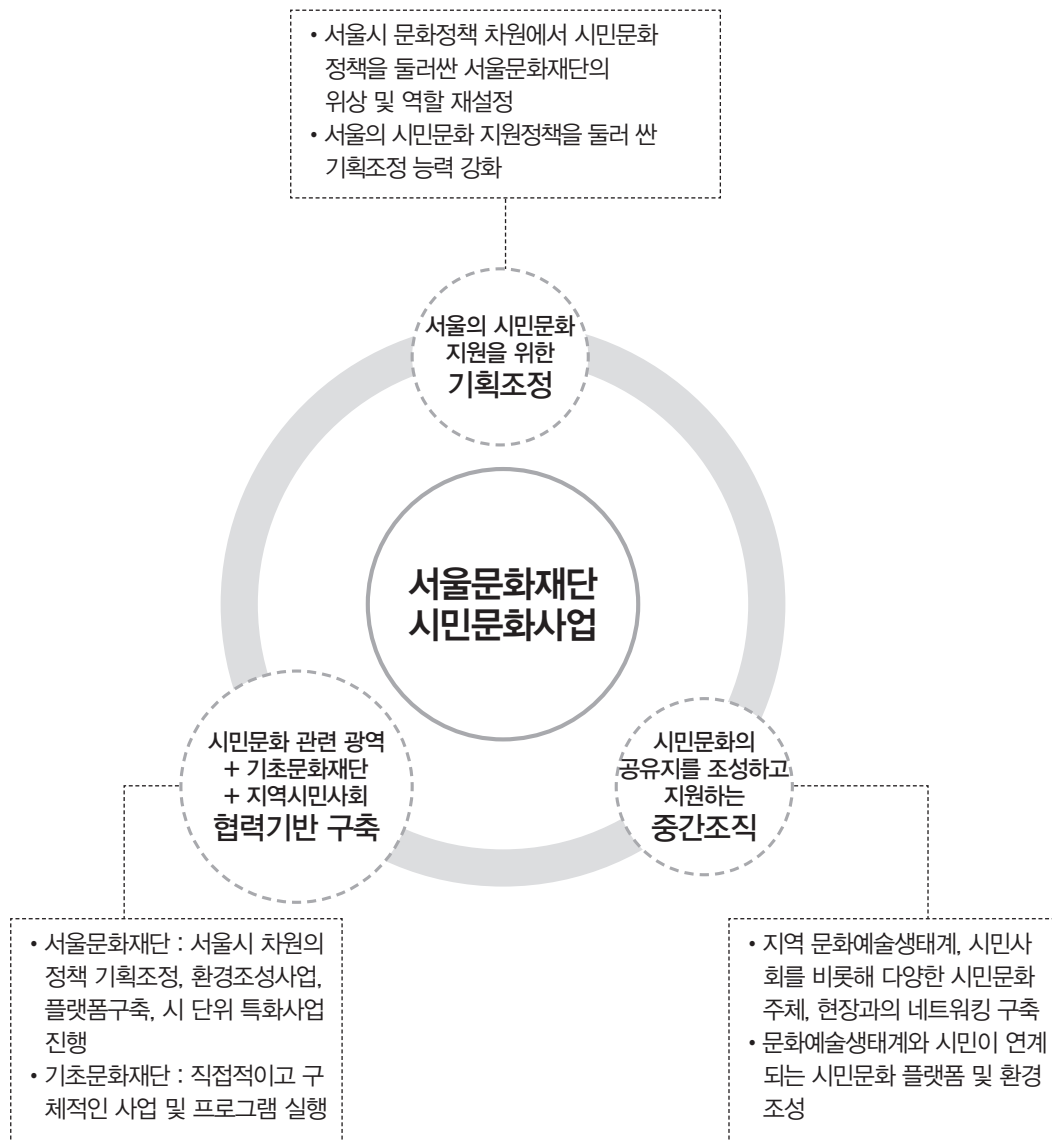
[그림38]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시민문화사업의 목표 설정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역량 강화 기반형', '사회관계 기반형', '커뮤니티 기반형'의 새로운 유형화 및 포지셔닝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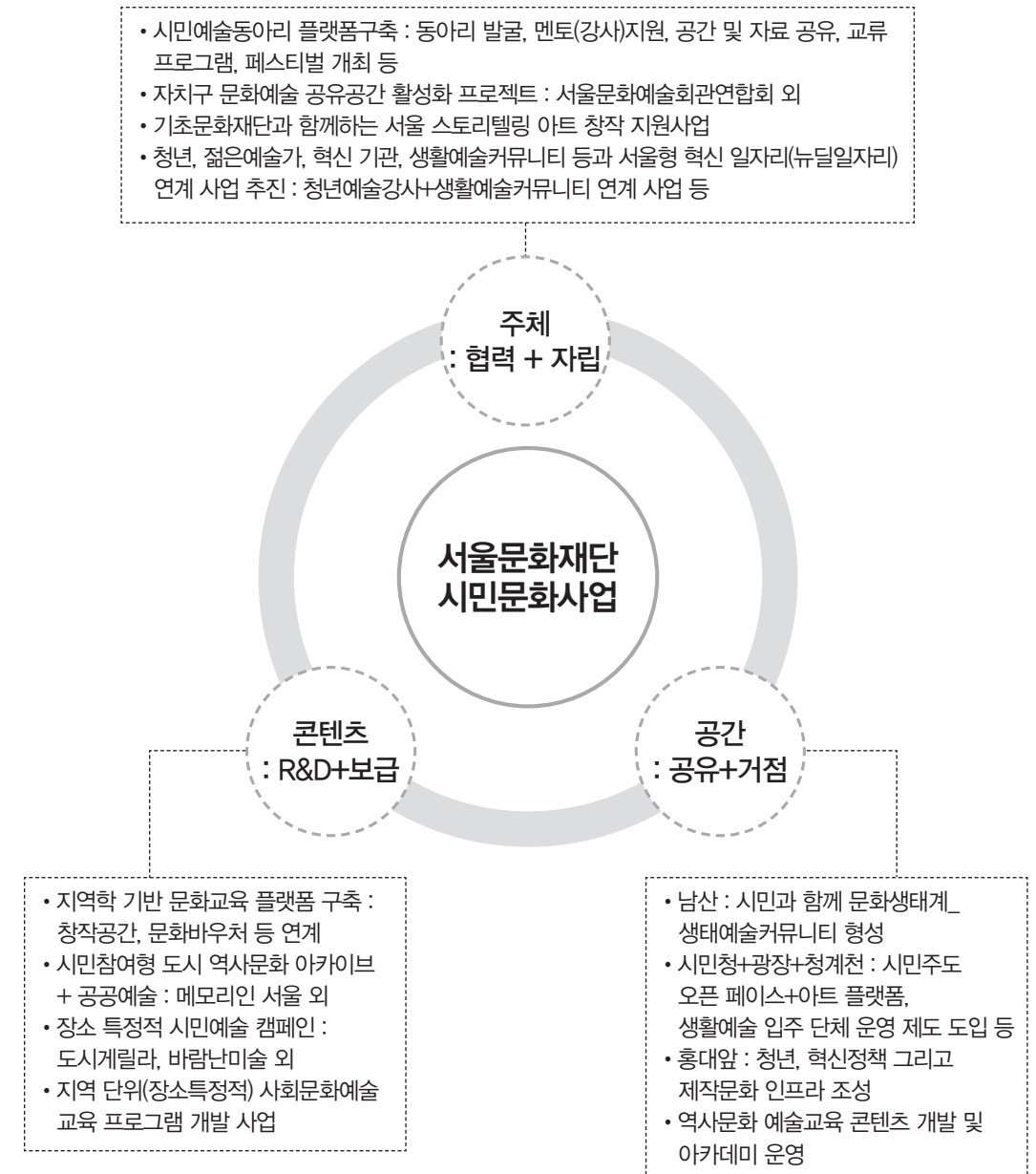
[그림39]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새로운 유형화 및 포지셔닝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의 시민문화 지원을 위한 기획조정’, ‘시민문화 관련 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지역시민사회 협력기반 구축’, ‘시민문화의 공유지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중간조직’ 등의 혁신거버넌스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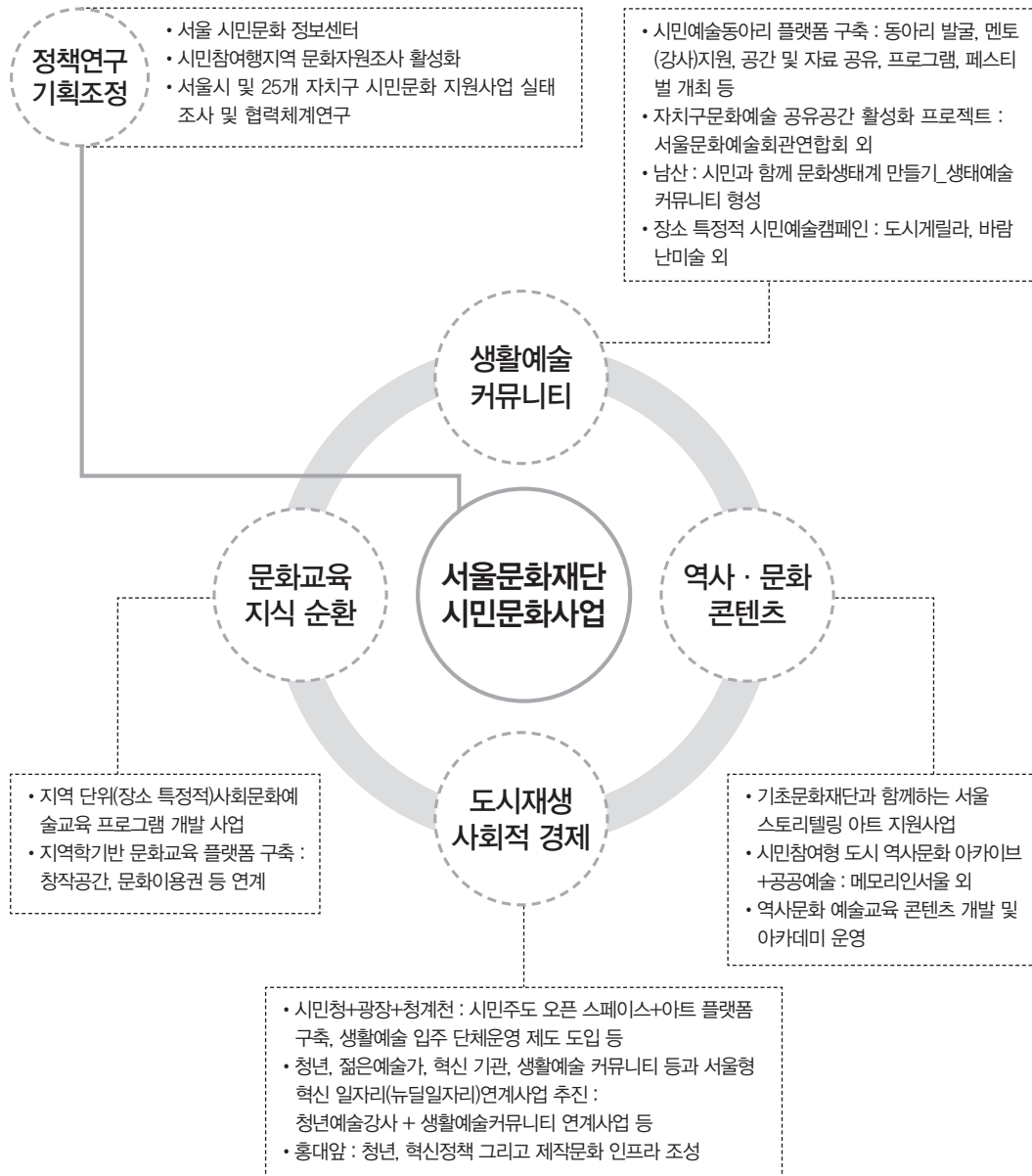
[그림40]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혁신거버넌스와 협력체계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적 충위를 고려한 전략 사업들이 추진돼야 함. 이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주체를 둘러싼 협력과 자립’, ‘콘텐츠를 둘러싼 R&D 및 보급’, ‘공간을 둘러싼 공유와 거점’을 의미하며, 각각에 대한 전략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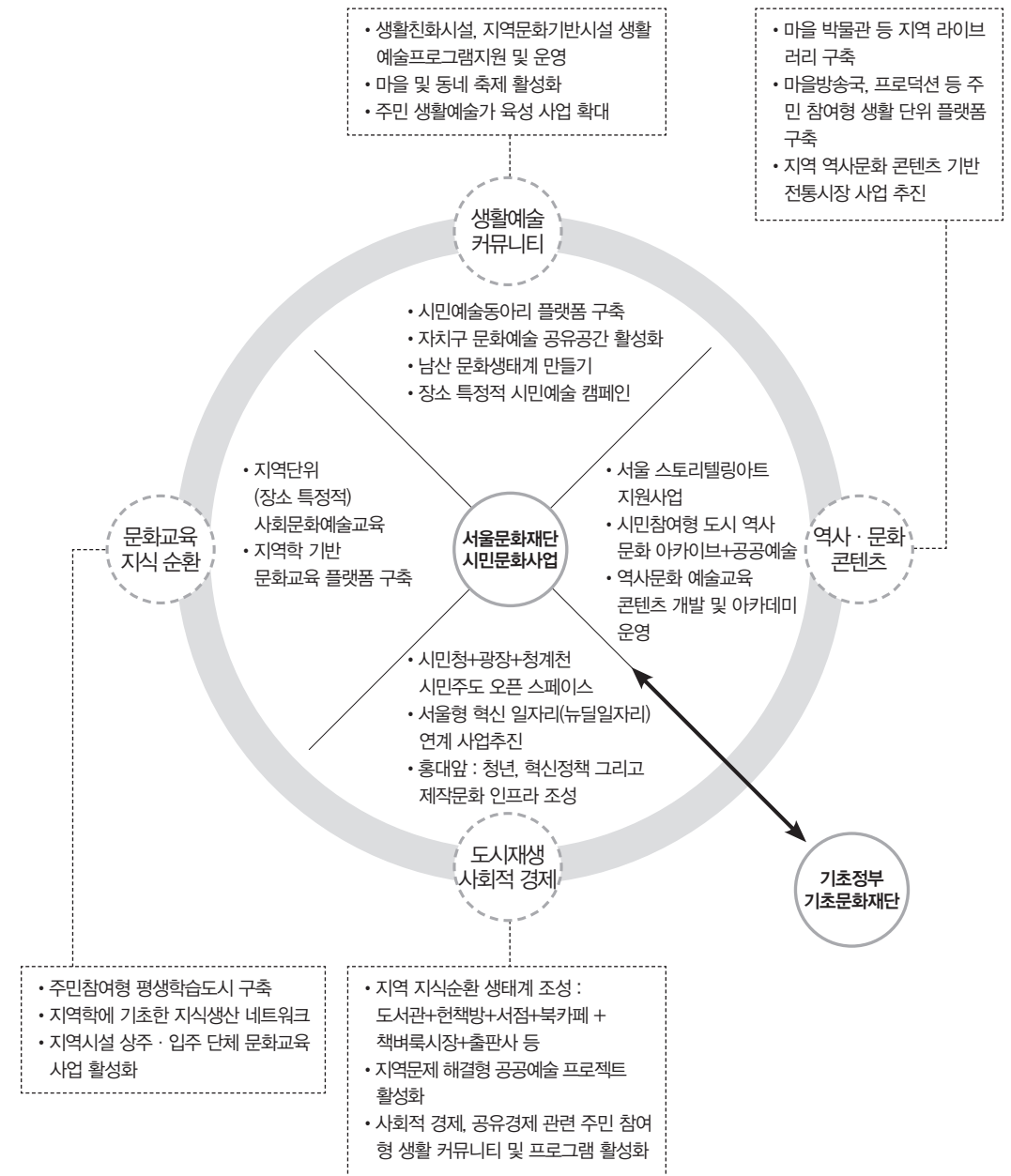
[그림41]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구성적 충위의 전략 사업 추진

-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사업을 앞서 검토했던 기초문화재단 및 생활권 시민문화지원사업 등과 통섭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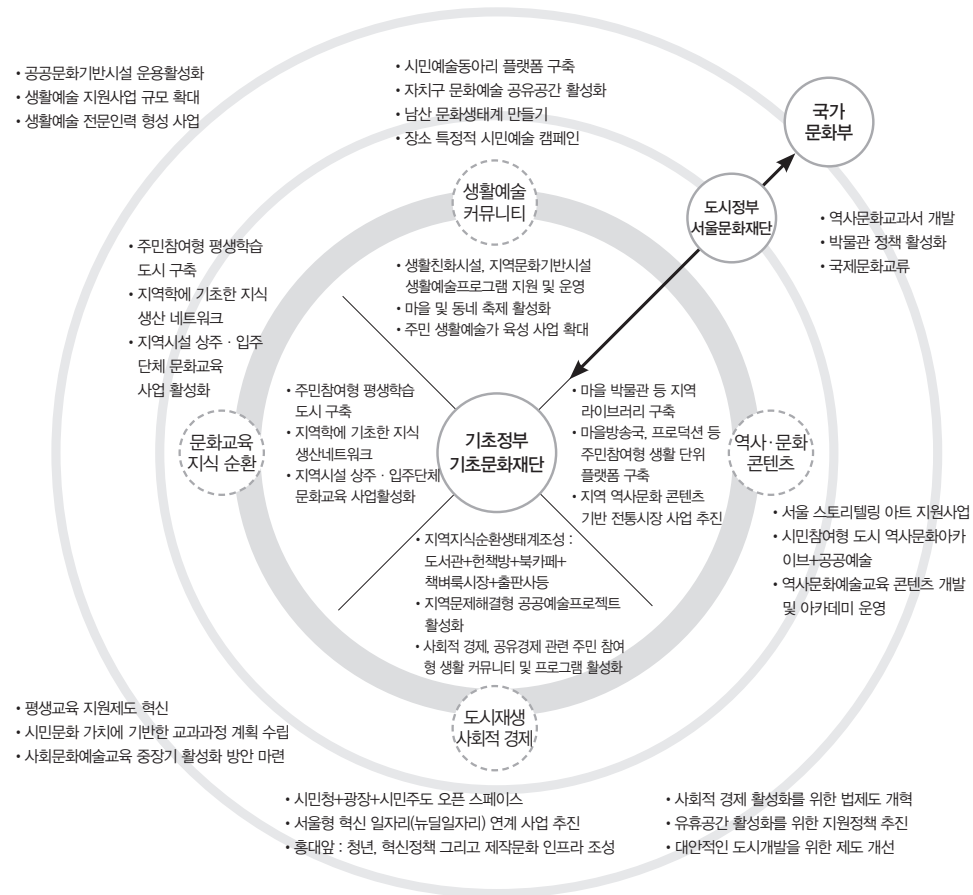
[그림42]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통섭적 관점의 전략 사업 추진

- 시민문화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서울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관계성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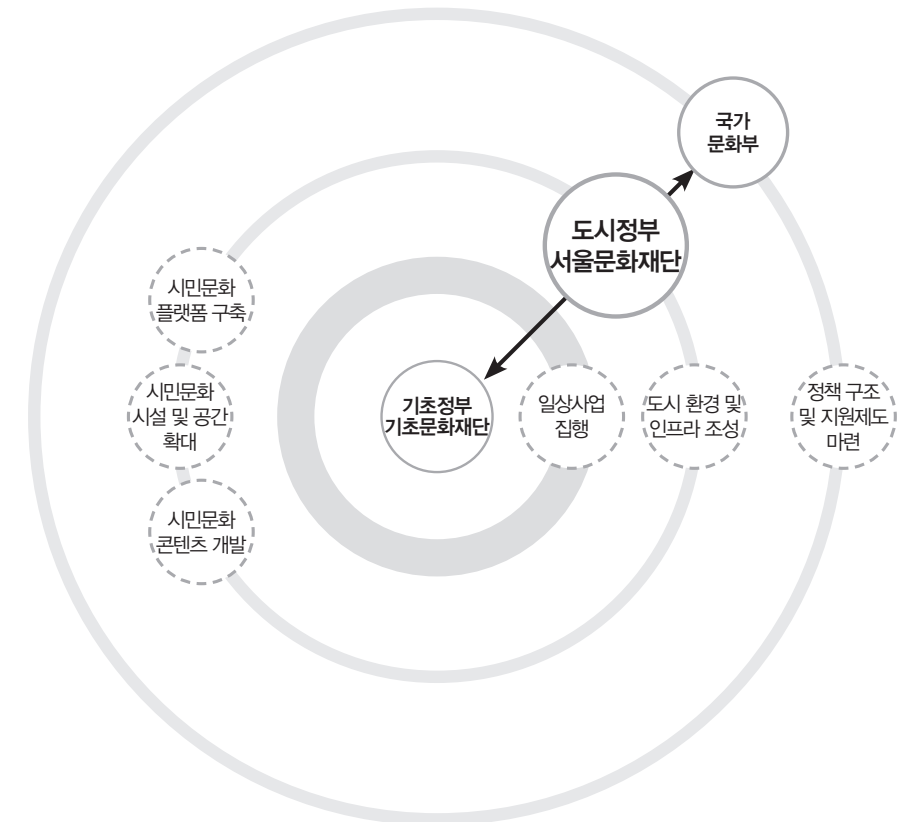


[그림43]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의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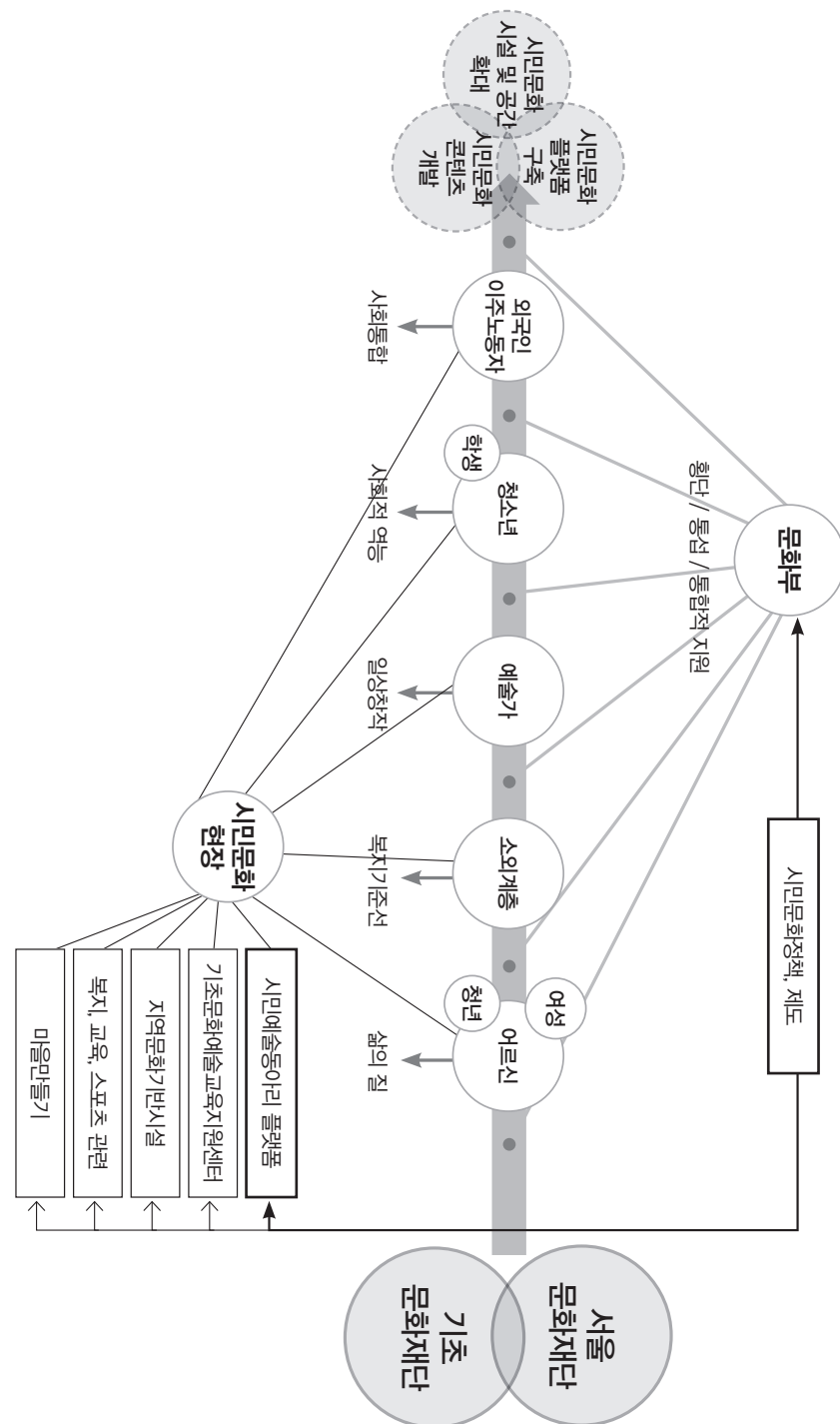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서울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그리고 중앙정부 사이의 구조적 관계성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44]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서울문화재단+중앙정부의 관계 설정(1)



[그림45]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서울문화재단+중앙정부의 관계 설정(2)



[그림46]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 _ 기초+서울문화재단+중앙정부의 관계 설정(3)

〈참고문헌〉

- 김상철 · 이원재, 〈서울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 2012.
- 문화사회연구소, 〈성북문화재단 중장기 문화정책 연구보고서〉, 2013.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4기 경영전략개발 - 1단계 사업재편전략〉, 2012.
-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 2012 - 문화가 꿈, 文化 가꿈〉, 2012.
- 서울문화재단, 〈지역협력 예술지원정책에 대응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2012.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 2013.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비전 2015〉, 2006.
- 서울특별시, 〈서울 컬처노믹스 - 비전과 전략〉, 2008.
- 서울특별시, 〈2013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2013.
- 성북구청, 〈성북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비전 연구〉, 2013.

서울문화재단 연구 2013-04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인 조 선 희

발 행 일 2014년 2월

발 행 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130-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홈페이지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전화 02)3290-7133 이메일 suggest@sfac.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